

KOREA WOOD DESIGN AWARDS

2004 한국목조건축대전





녹색 숲을 품안에, 파란 꿈을 후세에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302-701)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 대전청사 1층 Tel. 042)481-4152
<http://www.fo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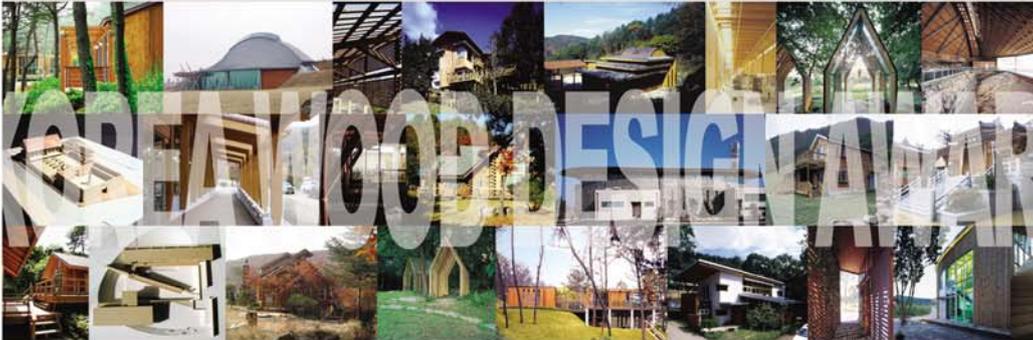
2004 한국목조건축대전

Korea
Wood Design
Awards 2004

KOREA WOOD DESIGN AWARDS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목재 등 재생이 가능한 자연재료를 활용한 건축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목조건축대전은 우리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목조로 구현된 역작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목조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대전이다. 한국목조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나갈 '2004 한국목조건축대전(Korea Wood Design Awards 2004)'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란다.

한국목조건축대전 2004



□ 응모부문 및 자격

- **공공건축물부문**
 - 응모대상: 2004년 8월 20일 이전 준공된 국내 목구조건축물, 통영구조물, 목재를 활용한 리노베이션 목조건축물 부문 (상업시설, 문화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 일반건축물)
 - 제외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 목조주택사업권 취득 (목조, 목구조물, 레조 등)
- 응모자격: 목구조물제 설계/시공자 또는 목공 건축물의 관련자(건축물대장 등) 실제 청사진이 있는 자
- 응모자격수: 응모자 1인당 최대 3명
- **계획건축물부문**
 - 응모대상: 목구조물, 목구조관련장기인 등으로 광범위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확보한 계획도 설계 작품 (소재별 시험은 목재문화포럼 홈페이지(www.woodforum.or.kr)를 참조)
 - 응모자격: 건축실제업무 종사자, 대학(교) 및 대학원 건축 관련학과 재학생
 - 응모인원: 공동작품은 최대 2인

□ 제출서류

- **공공건축물부문**
 - 출품신청서 1부
 - 작품설명서 1부 (A4용지 1매 분량, HWP(*.hwp) 또는 TXT(*.txt)양식으로 작성)
 - 건축물대장 1부
 - PRESENTATION용 CD 1매
 - 1. PowerPoint(*.ppt)로 작성
 - 2. 인쇄도면, 상세, 구획, 건축물 사진 등 포함
 - 3. PRESENTATION에 사용된 이미지 파일(해당도300dpi) 분무 포함 (주요 자료별 명단에 사용 예정)
 - 설계자/시공자 연락처 1부 (HWP(*.hwp) 또는 TXT(*.txt)양식으로 작성)
 - 1. 공모작품이 공동제작 또는 공동시공 적용될 경우 대표 설계자(시공자)를 구분 명시하여야 하며, 위와야 같이 제출할 경우 권리사항을 미리 기재하여야 함
 - 2. 수상자가 공동출품일 경우 대표 설계자(시공자) 1인에게 대해 시상함
- **계획건축물부문**
 - 출품신청서 1부
 - 작품설명서 1부 (A4용지 1매 분량, HWP(*.hwp) 또는 TXT(*.txt)양식으로 작성)
 - 제출 내용
 - 1매: 계획안 제출(A2용지 2장)
 - 2매: 계획(가로90mm×세로120mm) 1매
 - 모형(가로90mm×세로70mm×높이50mm)내, 모형한림도 포함
 - *1와 계획안 심사용 등과한 작품에 최대 2매 제출과 모형 제출

□ 작품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공공건축물부문 - 2004. 8. 21(월) ~ 2004. 10. 11(월)
계획건축물부문 - 1차: 2004. 8. 21(월) ~ 2004. 9. 20(월)
2차: 2004. 10. 11(월)
- 신청 및 접수장소: (125-3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000-2 지화빌딩 5층 (사)목재문화포럼 사무국(한국목조건축대전)
- 신청 및 접수방법: 우편접수, 방문접수(오전10시~오후6시) 가능
- 출품신청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www.woodforum.or.kr) 한자 출력하여 작성과 함께 제출
- 접수비: 없음

□ 심사

- 심사위원: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수상발표 및 시상

- 수상자 발표: 2004년 10월 중(입상자에 의해 개별 발표)
- 시 상 식: 2004년 11월 말(협의 및 장소 추후공고)
- 수상자에 한하여 작품집 발간

□ 기타 출품규정

- 다음 기교에 해당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필적사유 발생시 출품 무효 또는 입상할 수 없음
 1. 다른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
 2. 제출도시 및 서명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작성된 작품
 3. 실제 제작일자(설계일자 및 시공일자)와 제출시점상의 제작연차가 다른 작품
 4. 기타 공모요강에 명시된 출품물의 규칙 및 제출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
- 공모전에 제출한 자료의 출판권은 주최 측이 소유함

□ 시상내용

- **공공건축물부문**
 - 대 상(1명·선임직위): 상패, 부상 300만원
 - 준 상(3명): 상패, 부상 각 100만원
 - 입 령(2명): 상패
 - 특별공로상: 상패, 목구조문화포럼내 공이 큰 개인 및 단체

■ 계획건축물부문

- 금 상(2명):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은 상(2명): 상금 100만원 및 상장
- 동 상(3명): 상금 50만원 및 상장

□ 문의

목재문화포럼 사무국(한국목조건축대전) Tel. 02-566-5106, Fax. 02-2066-8214
홈페이지: www.woodforum.or.kr e-mail: woodforum@hanmail.net

• * 후원기관(특별자금) 지원사업 •

□주최: 목재문화포럼 _ 산림청 □주관: 목재문화포럼 □후원: 한국건축단체연합 _ 메인경제신문 _ 산림조합중앙회 _ 한국목조건축협회 _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제2회 한국목조건축대전 포스터

Contents

발행인 : (사)목재문화포럼이사장 안원영
 산림청장 조연환
 편집인 : 김진희 / 윤영균
 편찬분과위원회 : 위 원 장 조남호
 위 원 박민규
 편찬자문 임나라
 디자인 장경춘
 발행처 : (사)목재문화포럼
 주 소 :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8-2
 시화빌딩 5층
 전 화 : (02) 508-5106
 팩 스 : (02) 2006-6214
 E-mail : woodforum@hanmail.net

Publisher : Wood Culture Forum
 Korea Forest Service
 Editor : Kim, Jin-hee / Yoon, Young-gyun
 Editorial member : Cho, Nam-ho
 Assitant Editor : Lim, Na-ra
 Publishing Office : Wood Culture Forum
 Address : 5F Shi-hwa B/D 1008-2 Dae-chi Dong
 Kang-nam Gu, Seoul, Korea
 Zip-code : 135-280
 Tel : (02) 508-5106
 Fax : (02) 2006-6214

격려사	산림청장 목재문화포럼 이사장	06 07
심 사	개요 및 시상내용 심사평	08 09
작 품	2004 한국목조건축대전 수상작	
준공부문	대상 산림생물표본관 본상 MinMaRu II-205 Studio 금강휴게소 物我堂(물아당) 특별상 (사)궁중음식연구원 별관 입선 갤러리 안·양평 ELYSIAN C.C 몽블랑 펜션 펜션 「꿈꾸는 숲」 팁버프레임 펜션 첨태산 산림문화 휴양관 나무정자 지은이네집 출품작 갤러리 안·신봉 외	14 20 24 28 34 38 40 42 44 46 48 50 52 56
계획부문	계획작품 주제 설명 금상 ECO-METASTASIS 은상 EXTEND FRAME (도시연계 URBAN CONNECTION) 서울숲 습지 생태원 등상 FLOATING DECK 구조용 합판을 이용한 장SPAN 목조TRUSS (한국형 초등학교 설계) SUSPENDED STRUCTURE 출품작 조현리 생태주택 외	70 72 76 80 84 86 88 90
전시작 / 기고	2003 한국목조건축대전 수상작품 소개 THE WOOD DESIGN AWARDS 북촌 한옥 / 송인호	96 102 108
소 개	사단법인 목재문화포럼 소속단체	115

인사글 축사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목재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 사용하여왔고, 특히 목조건축은 건축 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철제와 콘크리트가 많이 사용되면서 목조건축물은 건축문화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들의 웰빙 욕구에 따라 탈 도시화, 전원생활 및 건강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 자연소재인 목재를 이용하는 목조건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목재문화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목재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목재가 인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였고 국민들이 목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목재교실환경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조건축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목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인정, 목구조 설계기준 제정 및 목구조공사업의 전문건설업종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목조건축대전은 우리 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가능성이 목조로 구현된 목조건축물을 발굴 시상 홍보하여 목재문화를 진흥함은 물론 우리 목조건축의 미래를 선도하고 한국 목조건축의 정통성과 맥을 이어나가기 위한 것으로 2002년에 개최한 「아름다운 목조주택 선발대회」를 발전시켜 2003년에 「제1회 한국목조건축대전」을 개최하였으며, 올해의 「제2회 한국목조건축대전」은 준공건축물 부문에 더하여 대학생, 건축설계사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건축물 부문을 신설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한국목조건축대전이 더욱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축제가 되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조건축산업의 밀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2회 한국목조건축대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대전을 준비하시고 성공리에 마무리를 하여주신 목재문화포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장 조연환

인사글 격려사



아름다움을 무한히 내재한 목재로부터 우리 사회의 여러 생활에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목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을 완료하고 우리 대전에 응모하여 주신 작가와 시공 관련자 여러분과 천연 재료인 목재의 특장을 최대로 살려 현실에 맞는 구조물을 설계 제출하여 주신 작가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의 생활에 필수인 의식주(衣食住)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와 사회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그 동안 건축재료와 건축공법은 수없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존의 재료와 새로이 연구 개발된 재료의 융합은 창의적인 우수 설계로 이어져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을 또한 사실입니다. 그 중에 우리 생활에 가장 적합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며, 특히 문화가 배어있고 인성 순화적 재료로서 장점이 많은 목재가 다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목조건축대전」은 이에 부응하여 사람들이 목조건축물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접하여 건강하고 활력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와함께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목재교실환경과 학교 숲 가꾸기」 세미나는 우리 목재문화포럼회원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 가는 마당입니다.

이러한 흥겨운 대전 잔치에 응모하여 주신 훌륭한 설계/시공자와 엄격하고도 세밀한 심사를 하여 주신 심사위원회 위원장 임창복 교수(성균관대학교 건축공학부)를 비롯하여 심사위원 김진희 소장(목조건축디자인센터), 박경수 소장(주·POS-A.C), 이진제 교수(서울대 임산공학과), 조남호 소장(주·솔토건축사사무소)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제2회 목조건축대전을 후원해주신 산림청 조인환 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반 사무를 적절하게 진행해 주신 포럼의 임나라 사무국장과 진은희 연구원께도 고마움을 전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재문화포럼 이사장 안 원 영

2004 한국목조건축대전 개요 및 시상내용

응모부문 및 자격

준공건축물부문

응모작품 : 2004년 8월 20일 이전 준공된 국내 목구조건축물, 혼성구조물, 목재를 활용한 리노베이션

- 목조건축물 부문 (상업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등 일반건축물)
- 목조주택 부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 목조옥외시설물 부문 (목조 조경물, 데크 등)

응모자격 : 응모작품의 설계자/시공자로서 출력 건축물의 관련서류(건축물대장 등)상에 명시되어 있는 자

응모작품수 : 응모자 1인당 최대 3점

계획건축물부문

응모작품 : 목구조물, 목조친환경디자인 등으로 공법과 재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미발표 창작 작품 (자세한 사항은 목재문화포럼 홈페이지(www.woodforum.or.kr)를 참조)

응모자격 : 건축설계업무 종사자 / 대학(교) 및 대학원 건축 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인

응모인원 : 공동작품은 최대 2인

제출서류

준공건축물부문

- 출품신청서 1부
- 작품설명서 1부 (A4용지 1매 분량, HWP(*.hwp) 또는 TXT(*.txt)방식으로 작성)
- 건축물대장 1부

PRESENTATION용 CD 1매

1. PowerPoint(*.ppt)로 작업
2. 설계도면, 상세, 구법, 건축물 사진 등 포함
3. PRESENTATION에 사용된 이미지의 원본(해상도:300dpi) 첨부 요망 (추후 작품집 발간에 사용 예정)

설계자 시공자 소개서 1부 (HWP(*.hwp) 또는 TXT(*.txt)방식으로 작성)

1. 응모작품이 공동설계 또는 공동시공 작품

일 경우 대표 설계자(시공자)를 구분 명시 하여야 하며, 외국사 참여 작품일 경우 관련 사실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2. 수상자가 공동출품일 경우 대표 설계자(시공자) 1인에 대해 시상함

계획건축물부문

출품신청서 1부

작품설명서 1부 (A4용지 1매 분량, HWP(*.hwp) 또는 TXT(*.txt)방식으로 작성)

제출 내용

- 1차 : 계획안 제출(A2용지 2장)
- 2차 : 패널(가로90cm×세로120cm) 1매
모형(가로90cm×세로70cm×높이50cm 이내, 모형받침대 포함)

※1차 계획안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패널과 모형 제출

작품접수

신청 및 접수기간

준공건축물부문 - 2004. 8. 2(월)
~ 2004. 10. 11(월)

계획건축물부문 -

- 1차 : 2004. 8. 2(월) ~ 2004. 9. 20(월)
- 2차 : 2004. 10. 11(월)

신청 및 접수장소 :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8-2 시화빌딩 5층

(사)목재문화포럼 사무국(한국목조건축대전)

신청 및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오전10시-오후6시) 가능

출품신청서 :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www.woodforum.or.kr) 받아 출력하여 작품과 함께 제출

접수비 : 없음

심사

심사위원 :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수상발표 및 시상

수상자 발표 : 2004년 10월 중 (입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

시 상 식 : 2004년 11월 말 (일시 및 장소 추후 공고) 수상작에 한하여 작품집 발간

기타 출품규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으며, 결격사유 발생시 출품 무효 또는 입상을 취소할 수 있음

1. 다른 작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작품
2. 제출도서 및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작성된 작품
3. 실제 저작권자(설계자와 시공자)와 제출서류상의 저작권자가 다른 작품
4. 기타 공모요강에 명시된 출품물의 규격 및 제출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작품

공모전에 제출한 자료의 출판권은 주최 측이 소유함

시상내용

준공건축물부문

- 대 상(1점-산림청장장) : 상패, 부상 300만원
- 본 상(3점) : 상패, 부상 각 100만원
- 입 선(다수) : 상패
- 특별공로상 : 상패, 목조건축문화발전에 공이 큰 개인 및 단체

계획건축물부문

- 금 상(1점) : 상금 200만원 및 상장은 상(2점) : 상금 100만원 및 상장
- 동 상(3점) : 상금 50만원 및 상장



2004 한국목조건축대전 심사평



심사위원장 / 임창복
성균관대 교수, 대한건축학회 부회장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관심으로 목재 등 재생이 가능한 자연재료를 활용한 건축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한국목조건축대전은 우리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이 목조로 구현된 작품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목조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 제전이다.

금년은 그 2회째 맞이하는 해로 준공건축물 부문과 계획건축물 부문을 구분하여 응모작을 받았다.

그 결과 준공건축물 부문에서 25작품, 계획건축물 부문에서는 10작품이 접수되었다. 준공건축물의 경우 응모작을 기능에 따라 분류해본 결과 주거가 14작품, 비주거가 8작품 그리고 옥외 시설물이 3작품이 되었다.

심사에 앞서 심사위원들 간에 몇 가지 심사기준에 대해 의견교환이 있었다. 금년도 심사위원들은 건축물이 가져야되는 심미성을 강조하면서도, 목조건축물인 만큼 목구조의 아름다움이 표현된 작품을 높게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상으로는 산림생물표본관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광릉수목원에 위치한 건물로서 산림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의 종자를 보존할 목적으로 전시가 아닌 분류보존이 목적인 건물이다. 이 건축물은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산림 박물관 뒤쪽으로 가로축을 맞추어 배치되었다.

구조는 2층 목구조로 박공지붕에 목질재료인 구조용 집성재를 활용하여 기둥 보 공법으로 된 건축물이다.

구조적 안정감과 대형 공간 확보가 돋보였으며, 간결한 목구조의 아름다움이 높이 평가되었다. 본상 작품으로는 '민마루 스튜디오'와 '물아당' 그리고 '금강휴게소'가 선정되었다. 민마루 스튜디오는 각 공간이 독립적이면서도 데크에 의해 공유되고, 솔리드와 보이드를 적절히 연계해 공간적 여유를 느끼게 한다.

특히 전통적인 목구조 형태의 변형으로 자유로운 입면처리가 돋보인 작품이었다.

한편 물아당은 그 평면이 매우 기능적이며 현대적 감각이 물씬 풍긴다.

목구조로 현대적 감각을 내기위해 일방향 경사 지붕을 채택하고 있고, 황토벽돌의 사용도 현대 감각이 나도록 배려해 두고 있다. 자연과 융합되는 현대식 목조건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한편 금강휴게소는 옥외시설물 부문에서 선택된 본상작품인 바, 현대건축의 디자인 경향이 잘 반영된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궁중음식연구원 별관은 특별상을 수상하였는데, 전통한옥과 연계하며 새로운 목구조 건축물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건물이 위치한 원서동 뿐만 아니라 가회동 등 아직도 넓게 퍼져있는 전통 한옥을 새롭게 개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한 작품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계획 부문에서는 구법의 표현과 작품의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는데 'Eco-Metastasis'가 금상작으로 선정되었고, 은상작으로 'Extend Frame'과 '서울숲 습지생태원'이, 동상작으로는 구조융합관을 이용한 '장스팬 목조트러스', 'Floating Deck', 'Suspended Structure'가 선정되었다.

수상작들이 대부분 계획안이어서 완성도면에서

는 미숙한면도 보이나, 주제의 선택과 새로운 구법계획 등 준공작품에서는 볼 수 없는 창의성과 과감한 시도가 높이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목조건축의 시도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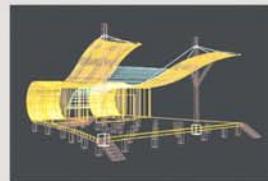
따라서 아직은 폭넓게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인간 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목조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매우 필요한 이시대의 요청이다. 모쪼록 목재문화포럼이 산림청과 벌이고 있는 한국목조건축대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나라 목조문화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전시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심사위원 / 김진희
목조건축디자인센터 소장

우리의 전통 목구조가 그 모습을 잃어가는 가운데 한국목조건축대전이 시작되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건축계에 목재를 이용한 신소재로 건축을 선도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본다. 목재가 낯선 특별한 재료가 아닌 역사적 바탕과 현대 건축에서의 다양성을 공유하는 기술적 소재로서 목구조의 공법이나 디자인의 활용은 미래 한국건축의 주요한 요소로 정립되리라 생각한다.

민마루2-205스튜디오는 두개로 채나놓된 단순한 상자를 피로티로 띄워 경사진 대지에 대응하고 있다. 목조와 철골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2004 한국목조건축대전 심사평

구조는 목조의 구법적 특성 또는 한계를 극복하고 가볍고 투명한 벽면을 가능하게 했다. 비교된 우수작품이 **지은이네집**인데 도시 안에서의 새로운 시도로 좋은 인상을 받았다. 다만 많이 보이는 디자인 요소들이 주거에서 내밀함을 경감시키고 지붕의 공기벤트 등 기술적인 우려의 원인이 됐다. **물아당**은 사이딩과 전면 박공 지붕으로 대표되는 왜곡된 전원주택의 가벼움에 대한 좋은 반성하게 하는 작업이다. 사적인 공간 사이에 외부 중정과 공적공간을 끼워 넣는 전통적인 공간구성 수법을 채용하고 있고, 흠뻑 들 조적조와 목구조를 혼합한 구법을 통해 생태건축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다. **금강휴게소**, 이전의 휴게소가 금강이라는 수려한 환경의 장소성을 담아내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리노베이션된 새로운 휴게소는 단순한 데크 위로 솟아오른 둥근 방부목 파일을 연속 배치하는 단순한 구조로도 금강을 스크린 사이로 끌어들이고 여행자들에게 비일상적인 풍경을 제공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서울시립대 나무정자**는 학생들의 하루만의 작업이다. 가벼운 구법이지만 쓰임을 한정하는 2개의 판과 공간을 한정하는 프레임은 결합으로 공간을 능숙하게 다룬 수작이다.

궁중음식연구원은 위치는 다르지만 서울시의 북촌 가꾸기 사업과 맥락을 함께 하는 프로젝트이다. 주로 현재의 방식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데 비해 새로운 시설에 대해 경골목 구조라는 이질적인 공법을 사용하면서도 전통적인 담장과 문살 등을 시설에 적절한 방식으로 잘 혼합하고 있다. **산림생물 표본관은** 심사 초기부터 대상 가능성이 점쳐진 적정한 규모와 명분, 구법적 완성도를 두루 갖춘 수작이다. 다만 훌륭한 구법이 좋은 건축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할 때, 시설 특성상 목조 공법을 보여주는 데 그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공간과 조우해서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한층 다양해져 가고 있는 한국목조건축대전이 내년에는 보다 더 폭넓은 목재 사용과 함께 각 학교시설 확충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목재 활용이 된 작품을 발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심사위원 / 박경수
(주) POS-A.C 소장

거의 전국에서 응모한 준공부문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출품작들을 대하면서,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목조건축물의 단아함과 수려함에 매우 고무된 첫 인상을 밝힙니다. 상대적으로 계획부문의 양이나 내용면에서는 준공부문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 건축대전에 참여하는 학생작품의 높은 완성도를 고려하면, 목조건축에서 요구되는 디테일 또는 전반적으로 '지어지는 건축'의 과정에 접할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면에서 서울시립대 학부과정으로 진행된 '나무정자'는 계획으로부터 현장설치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소재와 구법, 나아가 '생성되는' Tectonics의 이해를 한 단계 올림으로써 그 과정만으로도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마루2-205 스튜디오

일견 단순히 보일정도로 정제된 공간구성이 돋보이는 이면에는 열리고 닫히는 또는 들리는 공간의 계획의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자재와 구법의 선택이 있었음을 본다. 노출된 철제프레임은 목조건물의 경량함을 배가시키며 목조와 자연스레 어울려 계획과 선택의 자유로움만 제공하고 있다. 선형재로 나타나는 철골조와 목조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별되는 언어와, 전형적인 목조건물의 이미지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더욱 목조건축물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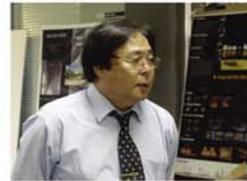
물아당

대지의 선택과 결과물이 보기 드물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는 모두 눈에 익은 것임에도 각부의 디테일과 조합방식은 매우 신선하다. 내력벽을 구성하는 황토벽돌은 구분 없이 목조프레임과 함께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앞마당(데크)과

사랑채의 배치에서 전통가옥의 공간구성을 보이면서도 중앙복도로 통합되는 현대적 해석으로 전통성과 보편성이, 物과 我가 하나 되듯이, 잘 어우러지고 있다.

심사 후 기억에 남는 두 작품에 대해 두서없는 단상을 적어 보았습니다.

한국목조건축대전을 통해 오랜 우리네 목조건축, 나아가 한국건축의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



심사위원 / 이진제
서울대 임산공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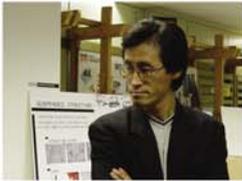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심사에 참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올해부터 계획 작품 부문이 신설되어 대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예상외로 참가가 적었던 것이 아쉬웠던 점으로 남는다.

전체적으로 출품작의 수준은 작년과 비교하여 볼 때 별 차이를 느끼지 못했으나, 부분적으로는 몇 가지 다른 점이 보였다. 지난 해에 크게 유행했던 펜션이 많아져서 주거부문의 출품작이 늘어났고, 공공건물이 출품되었던 반면에, 옥외시설의 출품이 적었다. 그리고, 전통 한옥의 리모델링에 서구식 현대목구조를 접목시킨 새로운 시도가 올해 처음으로 출품되어 목구조의 새로운 부문으로서 어떻게 자리 매김을 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었다.

올해는 지난 해에 비해 비교적 수상작 선정이 쉽게 진행되었으며, 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첫째는, 이번이 두 번째로서 심사에 익숙해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작품간에 차이가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아직까지 출품작의 준공 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비교적 최근에 준공된 작품과 그렇지

많은 작품의 차이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아직까지 설계자의 목구조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의 부족으로 인하여 목구조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린 보다 적극적인 표현이 설계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심사 후 보다 뿌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학생들의 출품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심사위원 / 조남호
(주)솔토건축사사무소 소장

현대건축에서 목조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 영항의 범위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19세기 근대건축에서 철과 유리의 역할을 현대건축에서 목재를 대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대 이전에서 근대건축으로의 혁명적인 이행은 산업화된 대량생산에 의해 생산된 철과 유리로 가능했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한 목재가 산업화 하면서 탄생시킨 공학목재(Engineered Wood)가 주택에서 대 공간 건축에 이르기 까지 작은 혁명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미래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10여 년간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한 목조건축의 확대는 건축가들 보다는 시장에 의해 선도되어 졌다. 이러한 수입된 시장은 새로운 재료가 보편화되기 위한 산업적인 기반이 되어 준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지속될 경우 주거문화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목조건축대전은 목재의 활용으로 지구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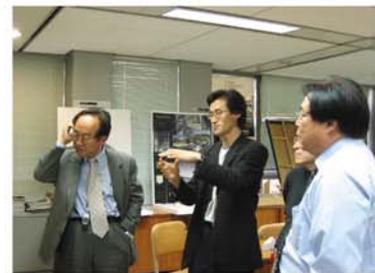
계획건축물 부문은 목구조의 텍토닉이라는 주제 하에 대략 다음과 같은 지침이 주어졌다.

- 1) 목구조, 공학목재, 건설공법, 설계기법에 대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것.
- 2) 목조건축의 기술이 시설과 관계없이 형태적인 요소로만 쓰이거나, 건축에 종속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피하고 건축적인 내용과 통합되도록 할 것.
- 3)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채용이 건축에서의 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표현할 것.
- 4) 대지와와의 관계에서 장소성과 맥락성에 대한 고려를 표현하고, 대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시설과 구법과의 관계를 드러낼 것.
- 5) 시대적 및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정기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할 것.
- 6) 자연재로서의 목재보다는 공학목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용을 전제할 것 등이다.

Eco-Metastasis는 캠퍼스 내 휴게시설 계획이다. 유연한 곡선을 이루고 있는 연속되는 목재들의 힘이 가장자리 부재에 전달되고 기둥에 연결된 와이어에 매달리는 방식인데 여기서 가장자리 부재는 없어야 했다. 연속된 목재면이 힘의 전달면이 되고 목재의 결합에 강선을 활용한다면 곡면은 인장과 압축면 만으로 구성되어 인장에는 강선이 압축에는 목재가 담당하는 보다 명쾌한 구조가 되었을 것이다. Extend-Frame는 도시 고가도로 하부의 수평보와 기둥에 기생하는 연속되는 직육면체들로 구성된 전시관이다. 출품작중 가장 주제에 근접해 있다. 목재 조인트 부분의 디테일이 육면체로 시작된 단위가 직교좌표를 벗어난 새로운 구성을 가능하도록 했으나 고가도로 하부라는 위치 선정, 스케일, 고가도로와의 구조적인 문제의 모호성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서울습지생태원은 대지를 다루는 숨겨진 프로그램의 적절성, 생태적이면서도 미니멀한 형태, CG에서 보여지는 전면회랑의 느낌 등 프라다운 면모가 보이는 작품이다. 아쉬운 것은 형태와 평면이 결정된 후에 짜 넣은 듯한 구법과 작위적인 중정은 그리 활력을 줄 것 같지 않다. 구조용 합판을 이용한 장스판 트러스는 수상작 안에 들었지만 기술적인 요소가 어떻게 건축화 되는지를, 철골 또는 콘크리트

구조일 때와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지적하고 싶고, 기술적으로도 슬라브에 대한 해석이 없다. 트러스보보다는 조이스트 형태로 했어야 한다. Floating Deck, Suspended Structure는 주제의식이 뚜렷하지 않다. 수변지역에 떠 있는 데크를 제안하고 있는데 데크 외에는 핵심부분이 이미 철골로 되어 있거나 철골구조에 더 적합한 형태들이다.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이고 준비기간의 부족을 감안 하더라도 출품작들의 수준은 심사위원들의 기대치에 부합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주제의 광의성과 학교교육에서 익숙하지 않은 접근 방식 등에도 응모자들의 고충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 건축가들의 열의와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04 한국목조건축대전

Korea
Wood Design
Awards 2004

진
영
파
문

대 상

산림생물표본관

최 상

MinMoRu II-205 Studio

금강휴게소

물매밭 (물어당)

준공부문 대 상



산림생물표본관

경민산업주식회사 배신식 (목구조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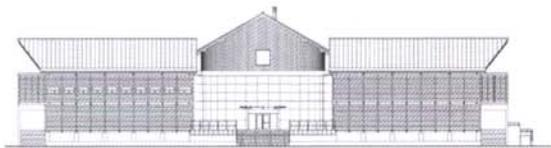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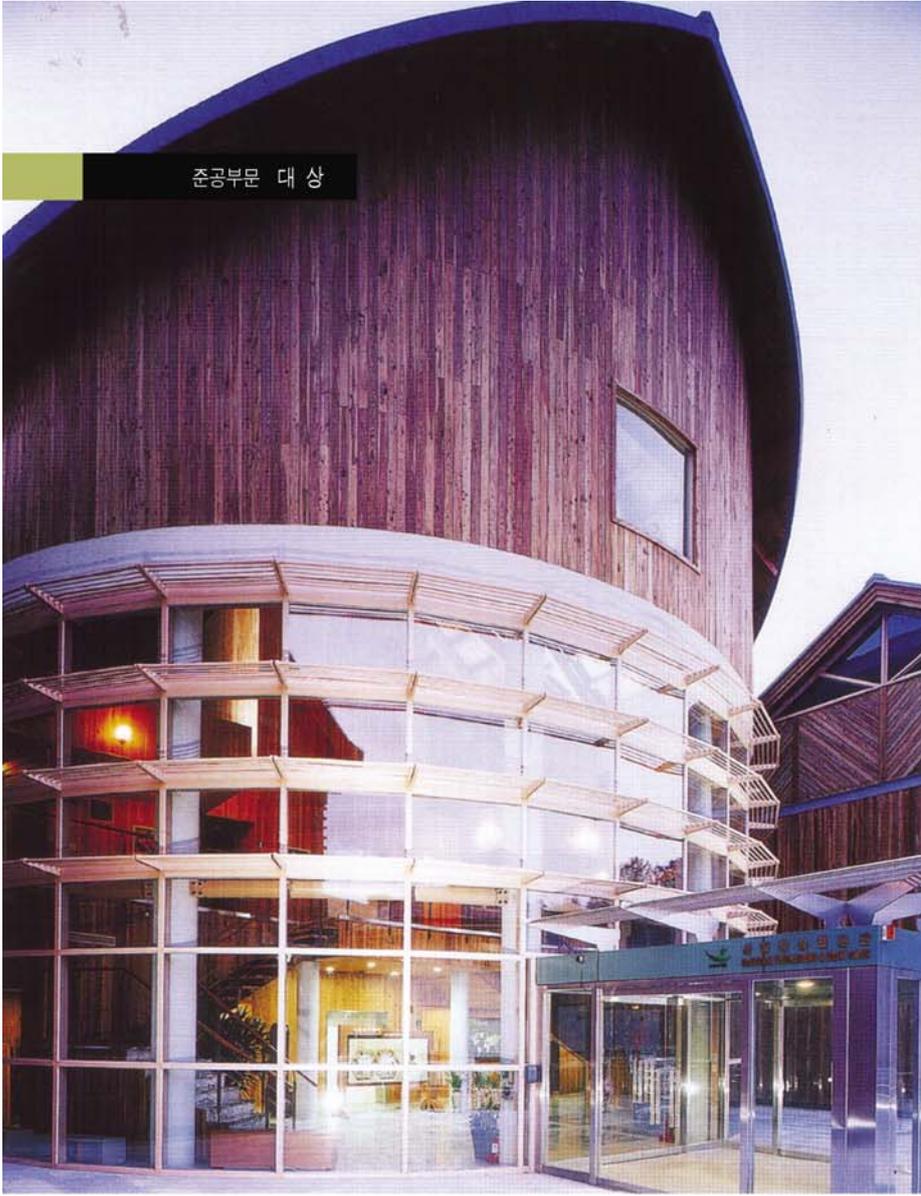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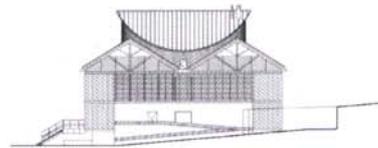
건축개요

공사명	산림생물표본관
대지위치	경기도 포천군 소흘읍 직동리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5,000.00 m ²
건축면적	1,257.95 m ²
연면적	3,778.61 m ²
건폐율	25.16 %
용적율	47.45 %
설계	명지대학교 + (주)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목구조시공	경민산업(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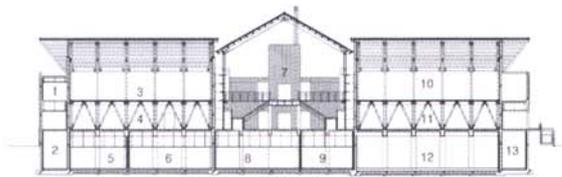
준공부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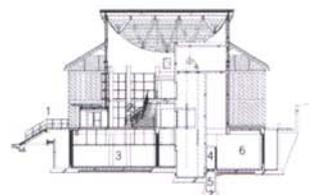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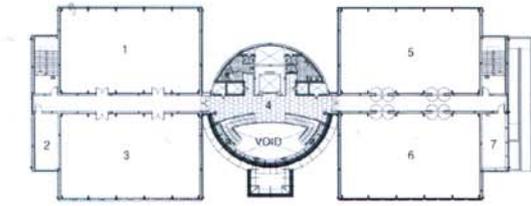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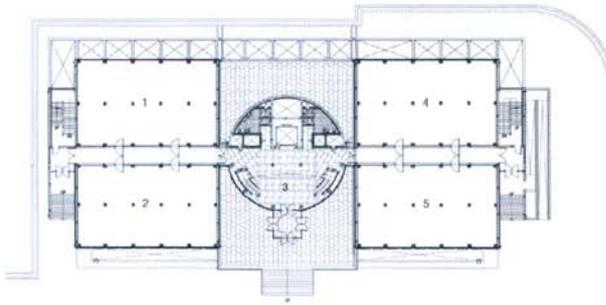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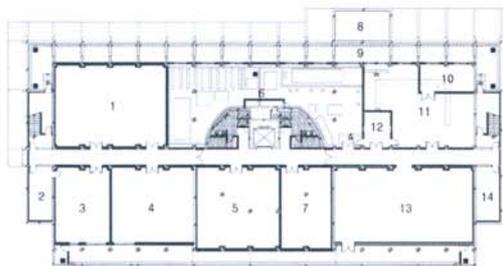
종단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국립 광릉 수목원내에 위치한 <산림생물 표본관>은 산림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의 표본관중자를 보존할 목적으로 전시가 아닌 분류 보존이 주 목적인 건축물이다. 이 건축물의 주변은 국내 유일의 원시림으로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산림박물관 뒤쪽으로 가로쪽을 맞추어 배치되었다. 구조 설계는 국내 최대의 순 2층 목구조로 우리나라 전통지붕인 박공지붕에 공학적 목질재료인 구조용집성재를 최선단 접합공법인 모멘트 저항 접합철물을 활용하여 설계된 기둥 보 공법의 목구조 건축물이며 최소의 자재로 구조적 안정감과 대형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다층 가위형 Double 트러스 기법을 연구 적용 하였다. 간결함과 아름다움 연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압축력을 주로 받는 구조재에는 Single 티입을 사용하여 심플한 느낌을 주었고 인장력이 가해지는 곳에는 Double 구조를 사용하여 구조적 안정과 미적 어우러짐을 표현했다. 1층 기둥의 단순함을 피하기 위해 V자형의 사장재를 사용하여 기둥 수량을 줄이면서 횡력에 대한 보강과 수직하중의 분산을 꾀하였다. 계획 이미지 기능이 매우 단순하므로 좌우대칭 전후대칭의 4개동을 동일한 형식으로 명쾌하게 풀이하였고 중앙홀에 동그런 코아와 가로로 긴 복도가 그 부분이 되어주었다.



준공부문 본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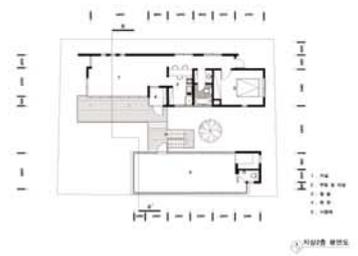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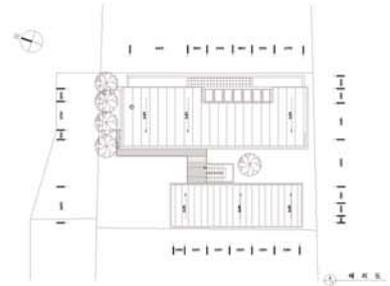
MinMaRu II-205 Studio

가외종합건축사사무소 최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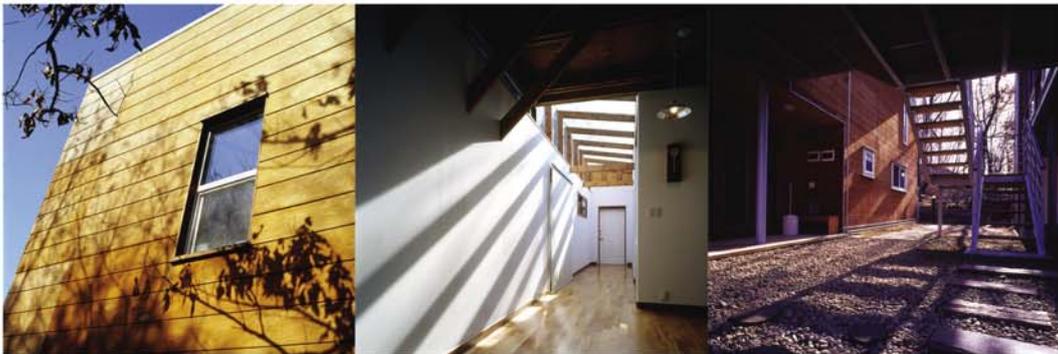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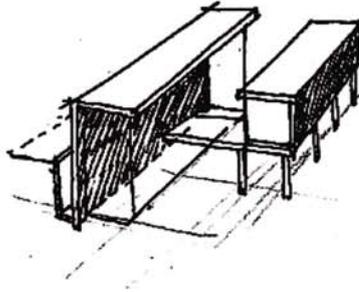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지역지구	관리지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298.00 m ²
건축면적	111.87 m ²
연면적	186.36 m ²
건폐율	37.54 %
용적률	62.54 %
규모	지상 2층 규모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조 + 경량목구조
외부마감	T.24 더글라스합판, 칼라강판, T.22 복층유리
내부마감	T.9.5 석고보드위 지장벽지 마감, 온돌마루, T.9미송합판위 수성스테인
설계/시공	가외종합건축사사무소

준공부문 시상



준공부문 특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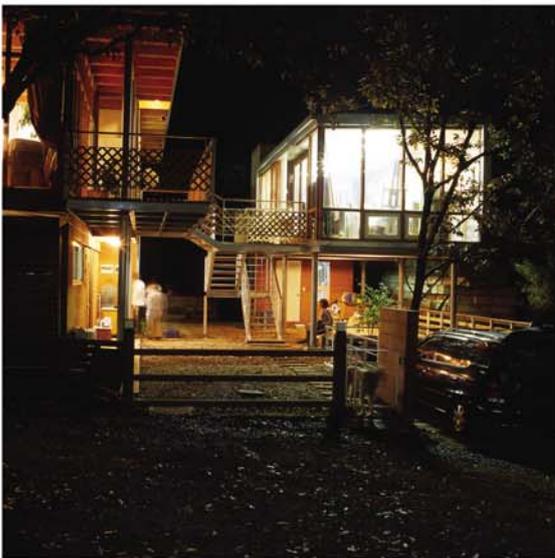


민마루Ⅱ의 주인은 젊은 디자이너 부부다. 사실 일반적인 건축주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건축주 중 가장 까다로운 부류(?)라고 할 수도 있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가의 몫까지 넘나들다 보면 종종 장담할수 없는 부담스러운 결론이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은 젊은 열정에 넘쳐나는 끼를 잠시 건축가의 안목에 맡겨두고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별다른 요구조건은 없었다. 그저 시작부터 끝까지 매일같이 현장에 들러 건축가와 목수 그리고 잡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정성을 보였다. 이렇듯 민마루Ⅱ는 건축주의 믿음과 관심에서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다.

민마루 단지에 지어진 두 번째 주택으로 자연적인 경사면과 대지의 형태에 따라배치되고 산의 흐름에 의해 채가 분리되어 있다. 다만 협소한 대지의 체나눔은 주거동과 작업실동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작업실동은 동측에 위치하여 인접대지의 주택과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작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중정이 형성되고 하부와 같은 공간을 제공하였다. 작업실동은 약간 남측으로 치우쳐 거실에서의 조망과 진입도로에서의 입면적인 분할로 주택의 다양한 얼굴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렸다. 1층, 2층 그리고 작업실은 가능한 별채로 사용하게끔 계획되어 데크에 연결된 높지 않은 계단을 통해 진입할 수 가 있다.

이건물의 주용도는 주택이다. 그래서 외부로 접해 있는 동측과 서측면은 모두 칼라강판으로 마감하였으나 병동으로 나누어진 사잇공간과 내부는 목재를 사용하여 이분법을 따르고 있다.



각 공간은 독립적이면서도 데크에 의해 공유되고 서로 솔리드(solid)하든 보이드(void)하든, 사잇공간의 형태로 모호한 경계를 형성한다. 각 공간은 모두 사잇공간으로 열려 있으며 그 사잇공간은 외부로 열려있고 동선의 절점으로 그리고 주택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마당이 된다. 보이드된 공간은 민마루Ⅱ에서 직접 외기에 접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외부로 열린 입면으로 인해 만들어진다. 이것은 전통적인 목구조형태의 변형으로 인해 부재의 간략화로 가능했으며 자유로운 입면구성의 방법이 되었다. 그로 인해 이 주택의 외형은 낮가림이 적다. 이색적인 서구의 목구조주택과는 달라서라기보다 입면구성이 여느 다른 건축물과 그다지 많은 차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준공부문 특 상



금강휴게소

솔토즈홀츠(주) 호현기 (옥외시설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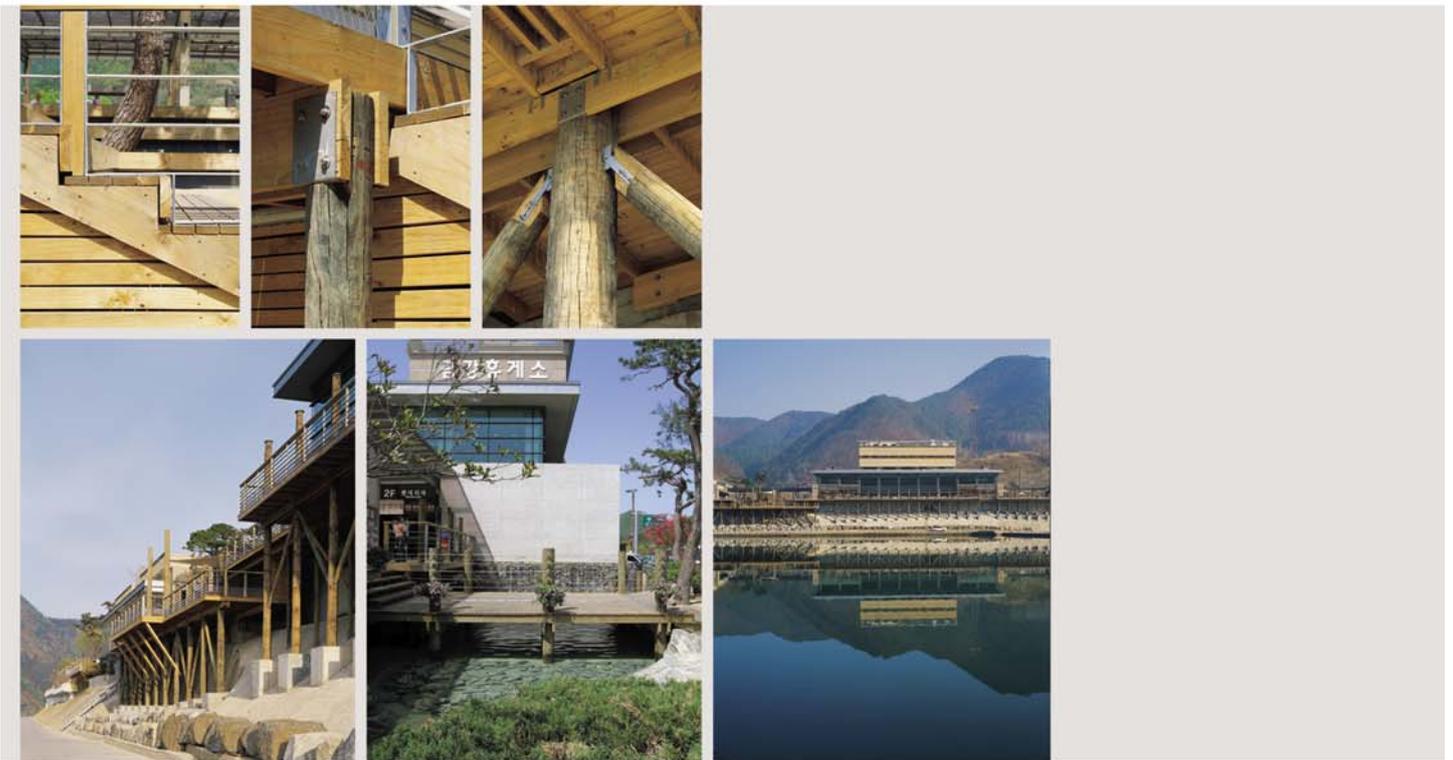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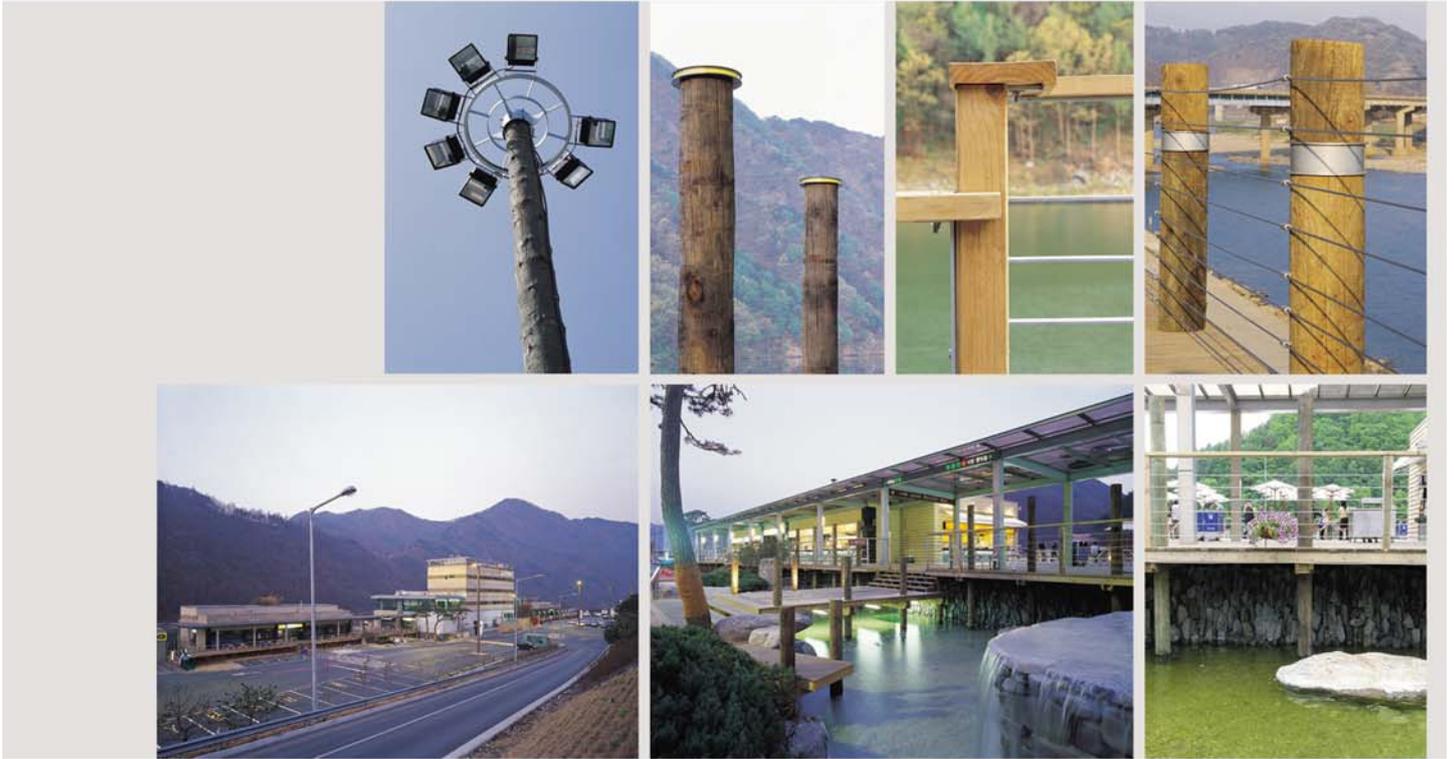
대지위치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조령리
용도	고속도로 휴게소
대지면적	8,793.00 m ²
건축면적	2,448.96 m ²
연면적	5,484.96 m ²
규모	지하1층 /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목구조
설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연미건축
옥외시설시공	솔토즈홀츠(주)



1969년 한국 최초의 경부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함께 세워진 금강휴게소는 금강개발, 즉 지금의 현대백화점이 관리해 오다가 2001년 노후 된 시설을 재 건축하기 위해 설계를 진행하던 중 2002년 여름 큰 홍수로 인해 더 이상의 영업이 불가능해 지면서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로 건축계획이 확정되었다.

디자인 협의가 시작된 지 2개월 후 아직 설계가 완성되기도 전에 구매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파일 같은 중요한 목재들의 발주가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힘들고 험난했던 1년간의 시공기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50년 만의 대 홍수를 경험한 터라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건물과 지반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마이크로 파일시공, 건물이 물에 잠겼을 때를 대비한 처수 문 설치, 홍수 때 주차장 레벨에서 1.7미터까지 물에 잠겼던 경우를 대비 모든 건물을 최종 주차장 레벨에서 1미터 정도 띄우면서 3개 동의 건물을 연결하는 모든 동선이 목재데크로 결정되었다. 건물 뒤쪽의 석축옹벽 위에 데크를 설치하고 그 위에 공연무대, 관객을 위한 스탠드 등 많은 데크가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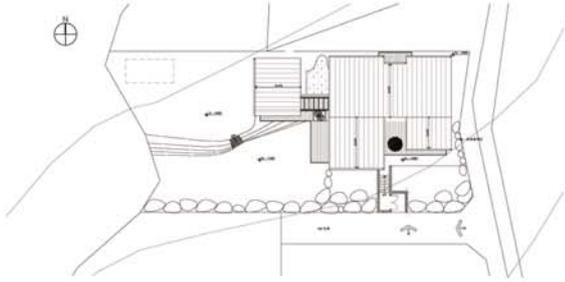
원형 풀을 이용한 건식기초 데크를 계획하며 땅에 박힌 기둥 위에 날렵한 막을 고정하는 뉴질랜드 디자인을 제안하여 독특한 야외 공연장을 실현한 것과 계획 초기에 주차장에 2개의 철제 조명탑이 계획 되었으나 후에 길이 18M, 8개의 울퉁불퉁 거친 방부 원형 폴로 변경시켜 조명탑의 비용도 크게 줄이고 디자인도 독특한 목재 조명탑을 설치한 것은 큰 행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길게 뻗은 휴게소를 따라 설치된 목재 산책로를따라 설치된 가로등과 블라드도 휴게소 전체 부지를 연결하는 띠의 형상으로 마치 숲속의 오솔길을 연상하게 된다.

금강휴게소는 건물의 기둥과 스라브가 철근 콘크리트조 이지만 건물의 외벽이 2x6 목구조로 처리된 절충형 구조로서 목조건축의 시험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방부합판으로 마감된 건물의 처마 부분이 이채롭고 4층의 직원 숙소가 45mm 두께의 특수합판으로 벽을 구성해 초기 안 200mm 벽으로 풀 수 없던 가구를 위한 평면 배치가 가능하게 되었던 일은 큰 보람으로 기억된다.

금강휴게소는 자연의 선물 목조건축의 전시장이다. 시공자로서 목조 건축의 생명은 정직한 시공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심신이 지친 고속도로 여행자들을 위한 즐거운 휴식처로서 금강휴게소의 목재시설물 하나하나가 오랫동안 기억 되길 소망한다.

物我堂 (물아당)

건축사사무소 노뚝돌 이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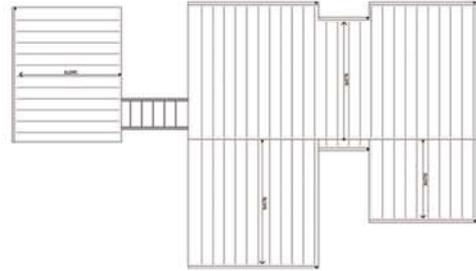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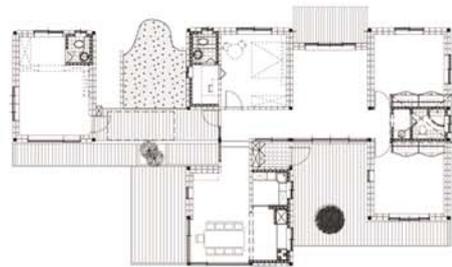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관음리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553.00 m ²
건축면적	330.00 m ²
연면적	330.00 m ²
건폐율	59.30 %
용적율	59.30 %
구조	목구조 / 조적구조
내부마감	바닥-온돌마루 / 벽-글루램기둥, 황토벽돌 / 천정-미송루버
외부마감	글루램기둥, 황토벽돌
설계	건축사사무소 노뚝돌
시공	(주)솔스티스종합건설



준공부문 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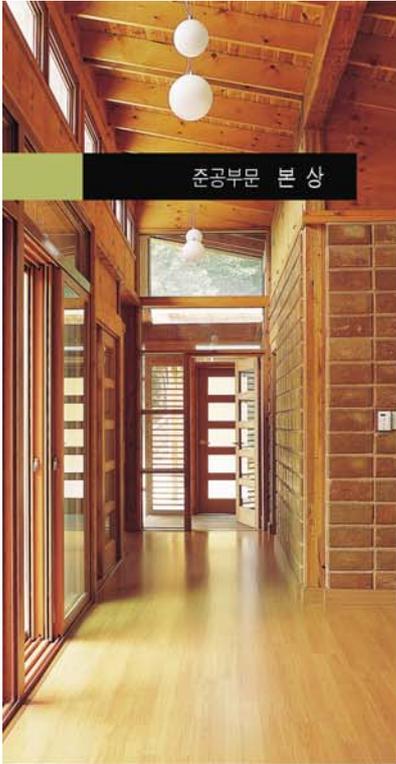


지붕 평면도



평면도





준공부문 본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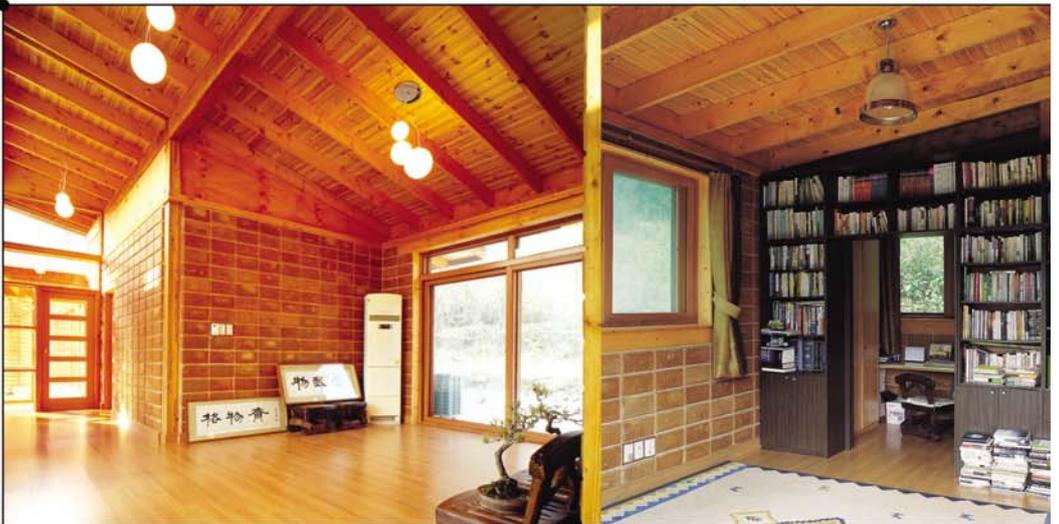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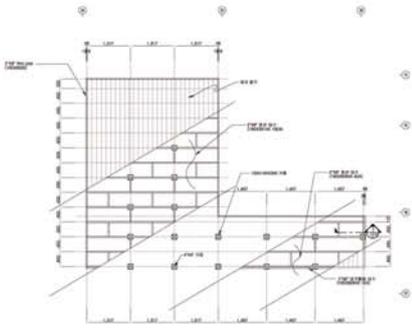
건축주는 애초부터 당호를 가지고 있었다. '자연과 내가 하나 됨을 추구한다. 그런 집 (物我堂)을 원한다'. 오늘날 현대인들 누구나 物我를 희망하면서도 그것은 마치 도시 생활을 다 떨쳐 버리고 산속 마을에 웅거해야 가능한 것 즉 속세를 떠난 별세계의 삶을 떠올린다. 과연 내 생활터전인 도시를 떠나 살기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희망사항에 만 머무르지 않고 '자연과 하나됨을 추구' 하는 행동을 얼마나 하는가에 달렸다.

동에서 서로 흐르는 시냇물에서 가파른 경사로 북쪽을 올려보면 3기구가 모두살이 할 1000여평의 대지에 우선 최 상부에 건축된 물이당의 붉은색 황토벽돌과 목구조 처마가 뒷산을 배경으로 앉아있다. 경사면은 자연적으로 조경마당을 꾸밈는데 그 곳이 바로 건물로의 진입로다. 앞마당개념의 데크마당은 물이당의 중심공간이며 내외부의 연결과 안산으로의 조망을 열어주는 틀이다. 주생활공간인 주방식당 역시 조망을 위해 전면에 배치되었고 침실의 기능만을 위한 안방은 북쪽에 놓였으나 고층창을 통해 자연채광이 유입되는 배려도 아끼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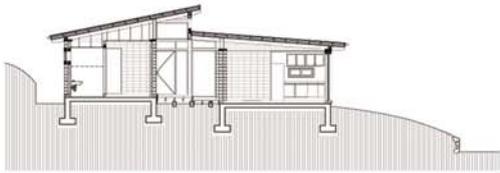
실질적 기능의 마당은 서쪽에 있는데 식당 외부 데크와 사랑채가 둘러 쳐져서 마당공간을 형성해 준다. 평상시의 사랑채는 남정네의 숲생태나 오카리나(홍피리)를 위한 공간이며 가끔씩은 방문객을 위한 곳이다. 방문객의 노선은 저 아래 시냇물에서부터 본채 전면을 휘둘러 마당에 진입하며 여기에서 조산과 안산의 풍경을 조망, 이어서 사랑에 들 때 전통가옥의 그것처럼 내외가 분리된 공간을 타고 흐른다. 사랑채에서 좀더 멀리 기성의 조립식건축물(한번에 트럭으로 실어 옮길 수 있는)은 안 주인의 도자기 혹은 천연 비누공예 작업실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모든 공간들은 동서축 중앙의 복도에 의해 통합되고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안산으로의 조망이란 가히..... 낮고 다양한 형태의 이름 없는 작은 봉우리들의 어깨가 나란하며 손을 뻗으면 잡힌다. 건축주는 바로 이 풍경을 찾아 그토록 긴 세월의 다리품을 팔았던 것이요 나 또한 4개의 계절풍경을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의 여덟풍경을 物我堂을 통해 지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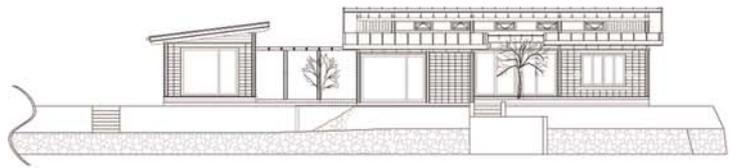




데크 평면도



해 단면도



장 단면도



2004 한국목조건축대전

Korea
Wood Design
Awards 2004

진
영
파
문

특
별
상

(사) 공중음식연구원 발관

입
선
작

갤러리안-양평

ELYSIAN C.C

몽블랑 펜션

펜션 「꿈꾸는 숲」

탐버프레임 펜션

창태산 산림문화 휴양관

나무정자

지은이네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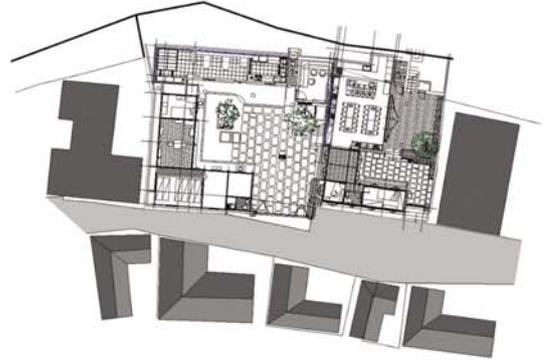
특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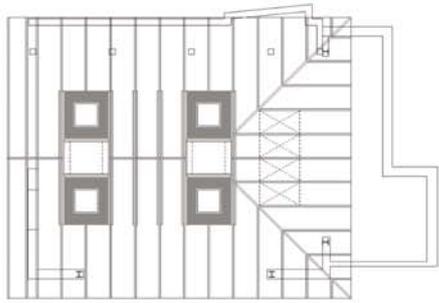
(사)궁중음식연구원 별관

구가건축사사무소 조정구 + 서울시립대 건축도시조경학부 교수 송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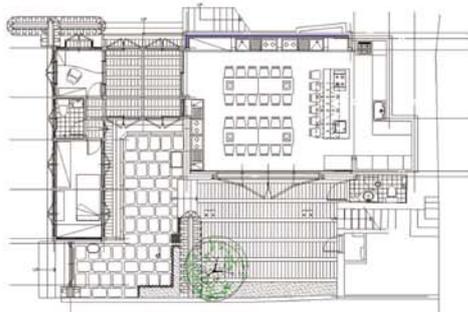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용도	한옥 : 사무실 및 주거 / 양옥 : 궁중음식 연구 및 교육
대지면적	162.00 m ²
건축면적	84.16 m ²
연면적	84.16 m ²
주구조	한식목구조+미국식목구조
규모	지상1층
설계	구가건축사사무소 + 서울시립대
시공	구가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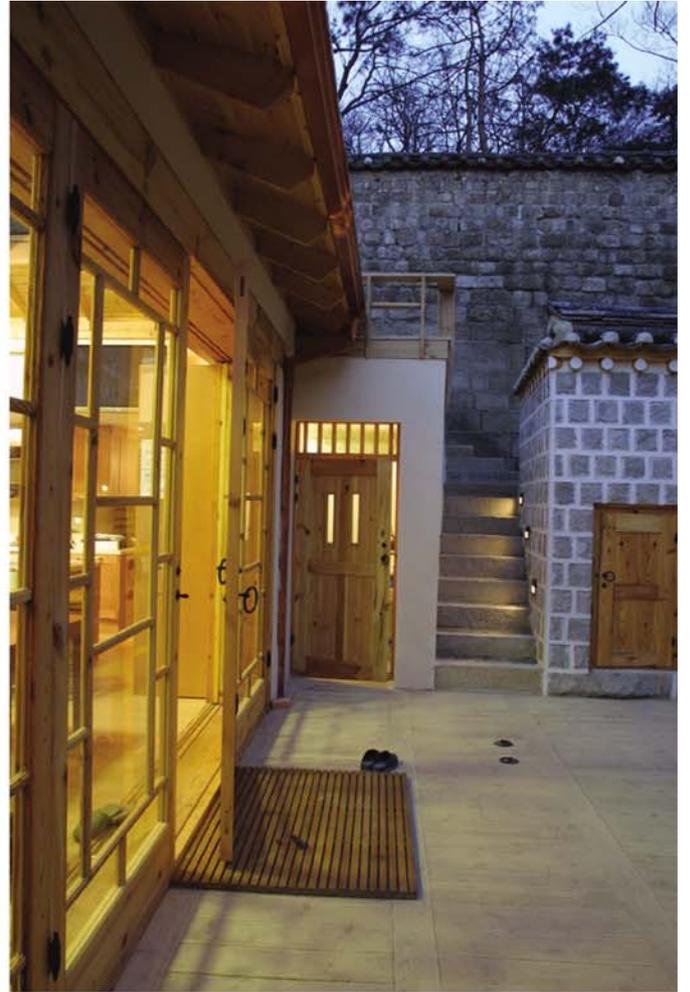




양육 천정 평면도



천정도





Conversion + Hybr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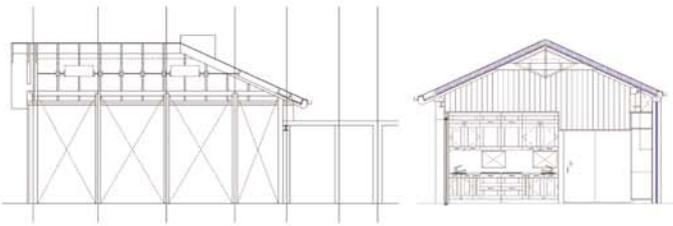
전통 궁중음식연구원이 창덕궁 서측 담장에 면한, 주거로 쓰이던 대지를 구입하여 개보수한 사례이다.

도로에 면한 한옥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수하여, 숙소와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안쪽의 건물은 일부 벽을 남기고 전면적으로 수리하였다. 특히 이 때, 2x4공법을 사용하여 지붕을 덮음으로서, 내부 공간을 무주화(無柱化)하여, 실습실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였다.

궁궐 담장을 볼 수 있는 천창, 한옥과 안쪽 건물을 구분하는 전통담장, 다양한 방식으로 개방되어 다양한 쓰임이 가능한 공간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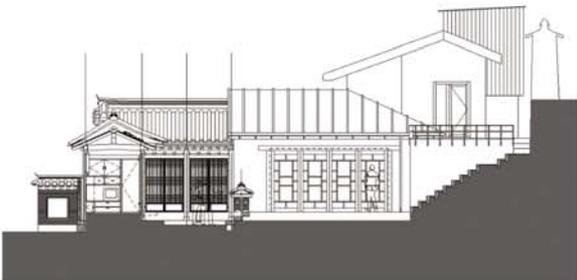
도시는 더욱 다양화되고, 도시한옥은 주거가 아닌 새로운 기능적 요구를 맞고 있다. 이 때, 새로운 구법의 공간과의 결합(hybrid)을 통해, 건축의 역사적 의미와 실용성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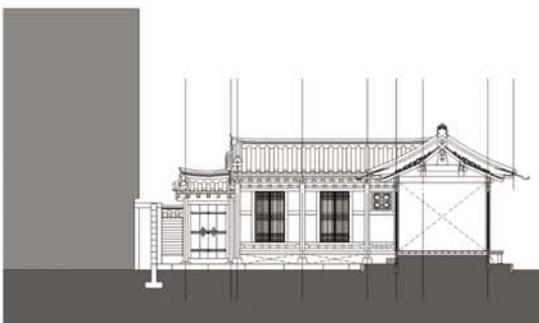


양구형 단면도

양구형 단면도



외면도



중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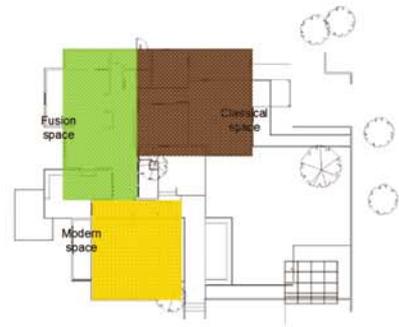
입 선

갤러리 安-양평

(주)솔스티스종합건설 김대영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660.00 m ²
건축면적	172.77 m ²
연면적	243.42 m ²
주구조	목구조
규모	지상2층
설계/시공	(주)솔스티스종합건설



SPACE IMAGE





이번 작품은 개발되지 않은 자연속의 전원주택이기에 건축 부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 조건을 최대한 살리는 자연에 순응하는 건축물이고자 하였다.

대지 경사도를 살려서 경사진 기초위에 세워진 건축물
 옆 개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
 주변 산세의 흐름과 일치하는 건축물

내부 공간은 두 부부만 주거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부부 중심으로 공간배치를 고려하였고, 본채와 사랑채의 개념으로 주인방과 거실을 분리시켜서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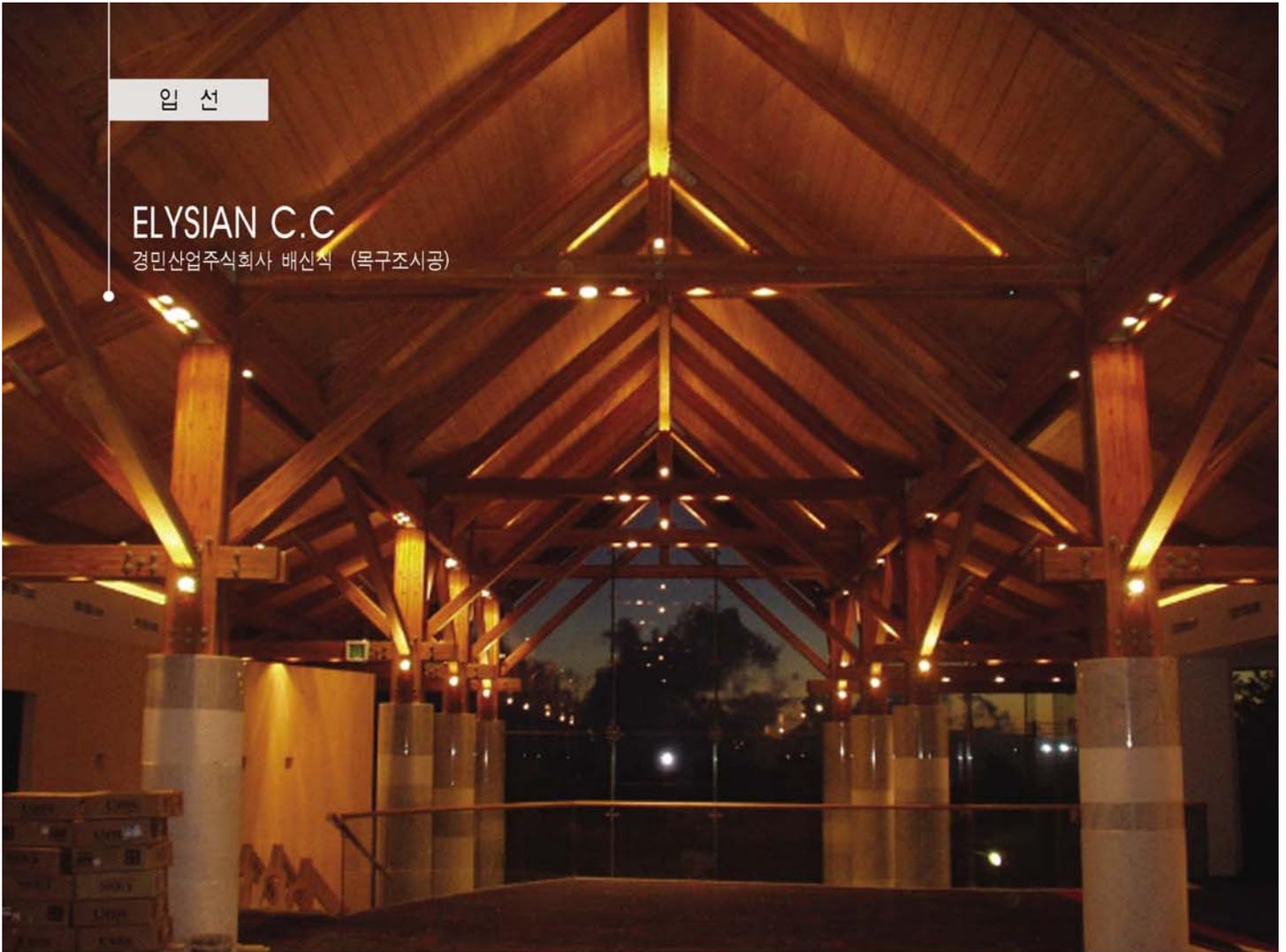
내부의 이미지는 주인의 다양한 소장품들을 채워놓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고자 하였으며 그 그릇이 야외 전시장 같은 편안한 집, 자연을 담아내는 공간이고자 하였다. 본채의 이미지는 modern한 분위기, 사랑채의 이미지는 classic한 이미지 그리고 두 공간이 만나는 곳의 분위기는 fusion space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고자 하였다.



입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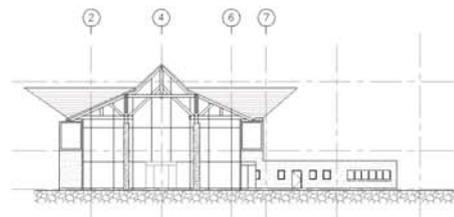
ELYSIAN C.C

경민산업주식회사 배신식 (목구조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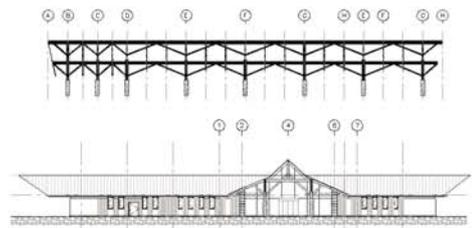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어음리
용도	운동시설
대지면적	1,457,699.00 m ²
건축면적	14,539.03 m ²
연면적	21,793.53 m ²
주구조	철근콘크리트 / 구조용집성재 (목구조)
규모	지하1층 / 지상2층
설계	창조건축 + B&PO(프랑스)
목구조시공	경민산업(주)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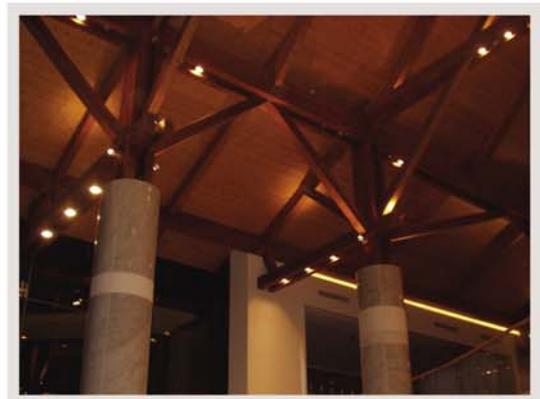
형, 입 단면도

제주공항에서 서쪽으로 20여분 남짓을 달리면 한라산 중턱에 초록색으로 물든 엘리시안 CC가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 이방인의 방문을 반갑게 맞이하는 클럽하우스는 설계자가 자연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지형그대로를 살려 V자형의 건축물을 계획하였다.

이런 클럽하우스의 평면구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한 개방감을 충족시키고 사용자 하여금 넓은 조망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넓은 잔디밭의 뜨거운 햇살을 피하는 휴식처로의 상징으로 프레리풍의 지붕을 사용 하였는데 이 지붕의 깊은 처마의 형태는 많은 그늘을 확보할수 있는 서부개척시대에 서부터 발전하여온 지붕의 형태이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외부 마감은 제주석과 목재를 적절히 사용하여 숲속의 가든을 연상시킨다. 또한 클럽하우스의 백미인 로비는 대형 목구조(구조용 집성재)를 사용하여 건물내에서도 나무숲의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건물외부에서 현관으로 이어지는 9M 간격의 원형기둥위로 목구조 기둥이 늘어서 있고 전면으로향하는 목구조는 넓은 시야로 자연스럽게 방향감을 유도하는데 성공하였고, 박공형태의 지붕 목구조는 기둥마다.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를 연상시키며 사방으로 곧게 뻗은 사장재는 넓은 지간의 횡력을 잡아주는 구조적인 보안과 함께 나뭇가지를 연상시키려는 작가의 의도가 그대로 녹아들었다. 최대한의 공간감 확보를 위한 장스판의 구조적 결점은 Truss와 Brace로 적절히 보완함으로써 나뭇가지의 형태가 오히려 더 잘 표현되었고 Single과 Double구조의 부드러운 조화가 확실적인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단조로움을 피할수있다. 다만 아쉬운점은 나뭇가지에 초록으로 물든 나뭇잎을 대신하는 인테리어적인 요소의 부재로 나무숲의 푸르름을 실내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숙제로 남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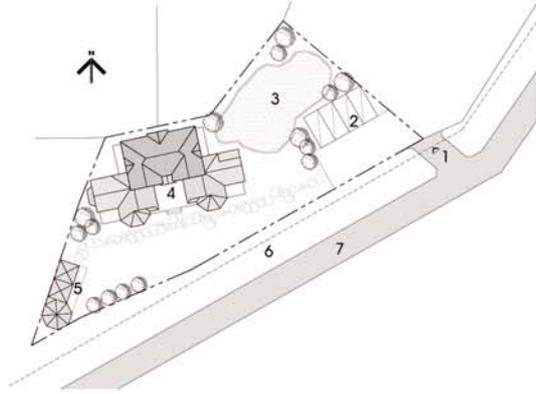
입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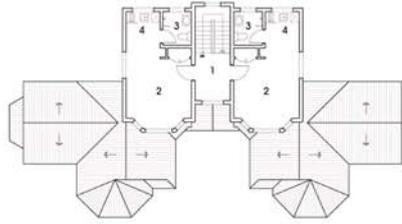
몽블랑 펜션

(주)내외건설 박동수

건축개요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용도	단독주택 / 펜션
대지면적	1,000.00 m ²
건축면적	135.95 m ²
연면적	196.48 m ²
건폐율	13.6 %
용적율	19.65 %
주구조	경량목구조
규모	지상2층
마감	외벽-시멘트사이딩 / 지붕-아스팔트 싱글
설계/시공	(주)내외건설





2 층 평면도

- 1 LIVING ROOM
- 2 BEDROOM
- 3 BATHROOM
- 4 KITCHEN
- 5 HALL
- 6 DECK



1 층 평면도



좌측면도



정면도



건축물의 주요구조는 순수한 2X4경량목구조시스템을 따르고 있다. 자연친화적인재료이며 우수한 단열성능을가진 목구조가 웰빙의 붐에 가장 적당한 재료이며, 겨울공사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요외부 마감은 시멘트사이딩이며 포인트로 레드파인 체널사이딩을 사용하였다. 집의형태는 방문객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동화속의 집을 연상시키게 하였고 외부의 칼라는 흰색을 사용하였다. 중앙에 자리한 데크공간과 그에 연결된 출입구로 들어가면 흠을 면하여 주인실의 공간과 객실, 그리고 2층계단이 연결되어있다. 객실은 각각의 취향에따라 다른 아이템으로 변화를 주었으며 그에따라 방의 칼라 및 침구류의 선택까지 신경을써야만 했다.

펜션 몽블랑이 일상을 털어내고 휴식을 취하려고는 이들의 마음속에 잔잔한 미소와 가족의 사랑을 느끼게하는 그런 공간으로 남을수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입 선

펜션 「꿈꾸는 숲」

(주)스튜디오 김갑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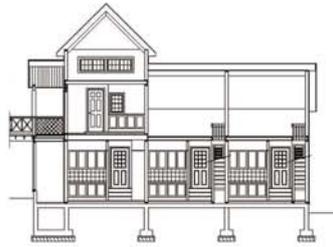
건축개요

대지위치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
용도	숙박시설 (펜션)
대지면적	7,140.00 m ²
건축면적	326.60 m ²
연면적	325.95 m ²
주구조	경량목구조
규모	지상2층
설계/시공	(주)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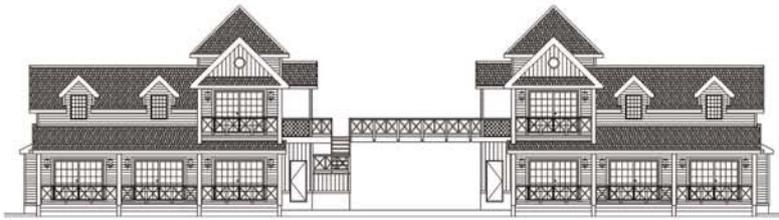




종 단 면 도



횡 단 면 도



정 면 도

자연이 잘 보존된 강원도 양양의 어성전 계곡의 개울 너머의 2,000여 평이 넘는 대지에 기존의 지형과 수목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마스터 플랜을 짜고 1차로 지어진 2동의 건물이다.

대지의 경사를 자연스럽게 살리고 공간감을 살리기 위해 1층 바닥을 Skip Floor로 처리하고, 천정을 높게하고 다락방을 침실로 계획하였다. 각 실에 딸린 데크에도 지붕을 덮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다락방에는 천창을 설치하고 전면에 고창을 두어 채광과 시야를 확보하였다.

각 실의 마감재가 모두 다르고 또한 평면 구성도 달라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도 단조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였다.



입 선

팀버프레임 펜션

반하우스 송만영



건축개요

대지위치 북제주군 애월읍 유수암리 검은덕이 마을
용도 숙박시설 (펜션)
주구조 중목구조
규모 지상2층
마감 외벽-ALC블록 / 외장-스터코마감 / 지붕-아스팔트 싱글
설계/시공 반하우스



팀버프레임 구조의 펜션용 주택이다.

펜션이라는 용도에 따라서 주방 과 식당부분은 축소되었고 창고 다용도실 등은 생략 되었다. 스킨으로는 목조 2x6 와 ALC 블록 두 가지 고려 중 ALC 로 결정 되었다. ALC 가 내 외장을 스테코로 마감하면 보다 더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유에서 결정 되었다. 설계는 중세 유럽의 튜더양식을 모티브로 하여 언젠가 잡지에서 본 장난감집을 재현하려 시도 하였다. 최초 기획은 튜더 양식 특유의 목재 스테드 장식으로 외부에 치장 하려 하였는데 최종 실행단계에서 생략되어 아쉽다.

프로젝트는 주 골격이 팀버프레임이고 또 전통 서양식 짜 맞춤 (Traditional Joinery)구법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팀버프레임 건축 특성상 건축부본과와 골조부분이 서로 연관적으로 동시에 설계되었다. 골조는 중간의 긴 포스트위에 타이(Tie)를 걸어 기대기 구조와 (Lean Structure)와 자립형 구조(Standing Structure)의 절충형으로 설계하였다. 지붕 구조는 주 서까래(Principal Rafter)와 도리(Purline)를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필린(Purline) 시스템의 4벤트(Bent) 3베이(Bay)형의 구조가 되었다. 전면부에 커다란 전실을 추가하여 거실을 확장 하였다. 이에 따라 골 추녀(Valley Rafter)가 필수였고 이에 따라 복합 각(Compound Joinery)의 치목(Lay-out)이 사용 되었다. 목재는 미송(스프루스)을 사용하였으며 한 달간의 씨즈닝(Seasoning) 후 사용 하였다.

레이아웃은 최초 밀룰(Mill Rule)을 사용하려 시도 하였으나 목재의 뒤틀림과 치수의 오차가 커 매핑룰(Mapping Rule)이 불가피 하게 사용 되었다. 따라서 레이아웃에서 예상 밖으로 애를 먹었으며 복잡한 단계를 거쳐 치목이 완성 되었다. 각 부분의 상세와 엔지니어링은 북미 팀버프레임 협회(Timberframer Guild of North America)의 여러분들과 동료 프레이머인 Nic Kokas Design 의 Nic Kokas 의 자문을 구하였다. 프레임 가공은 한명의 레이아웃터(Lay-outer)와 4명의 커터(Cutter)가 약 6주간에 걸쳐 작업 하였다. 조립 (레이징: Raising)에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2일이 소요 되었다. 이후 벽체는 250T ALC 블록을 사용하였고 외장은 ALC 전용 플라스터를 내장엔 Handy Coat 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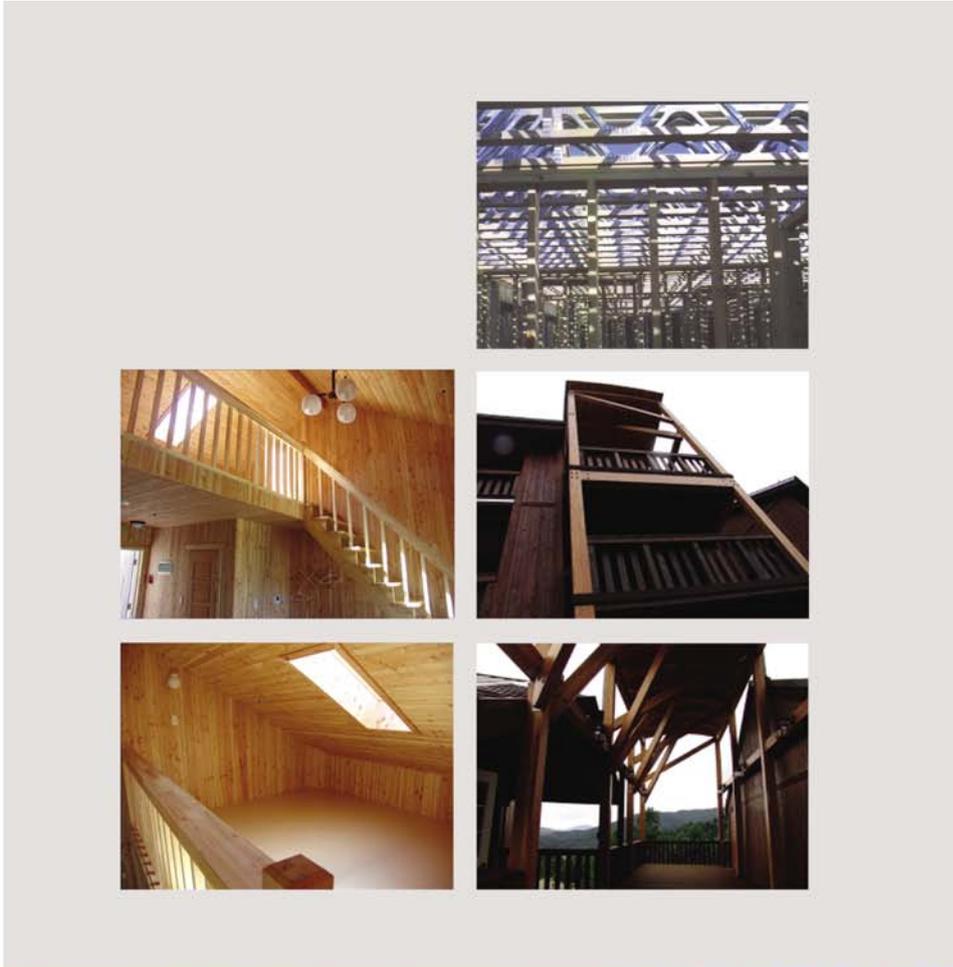
청태산 산림문화 휴양관

대림이앤씨(주) 권순관

건축개요

대지위치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삼교리
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대지면적	5,254,575 m ²
건축면적	449.09 m ²
연면적	864.72 m ²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목구조
규모	지하1층 / 지상2층
시공	대림이앤씨(주)





입 선

나무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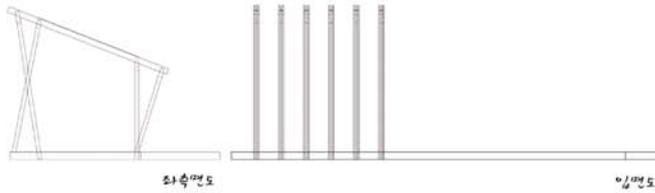
서울시립대건축학부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길
용도	정자(옥외시설물)
주구조	목구조
규모	지상1층
설계/시공	서울시립대건축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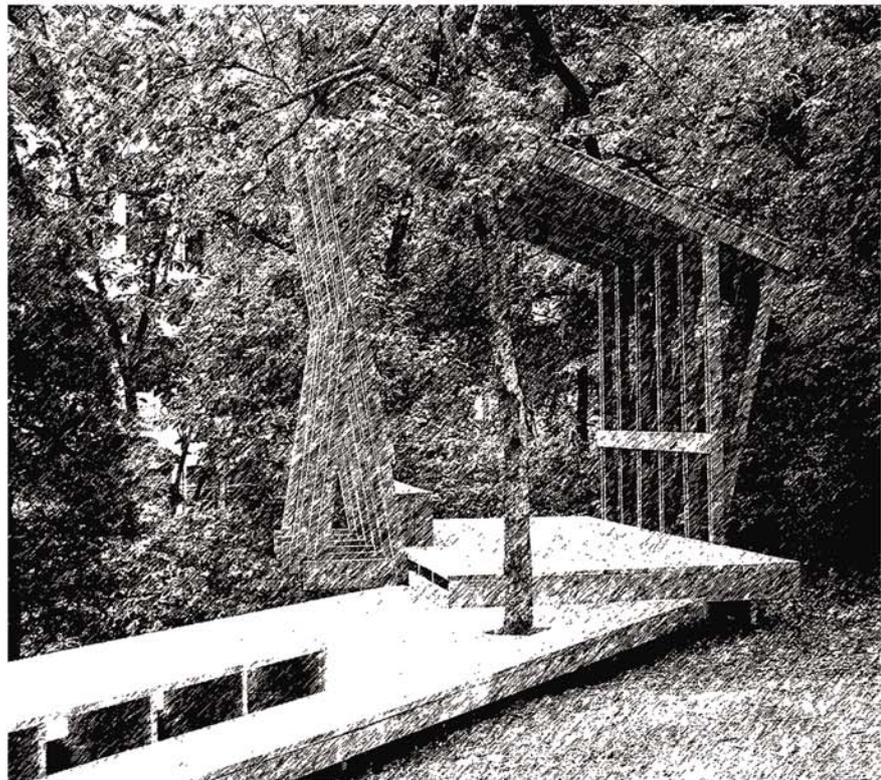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는 매년 건축설계3 수강학생들과 함께 교내에 목조정자를 짓고있다.

이번 목조대전에 출품하는 나무정자는 2004년 1학기에 설계시공한 것이다. 학생 3인이 1팀을 이루어 12개 팀이 2박 3일 동안 설계수업시간을 통하여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실제 대지에 건축물 설계안을 제출하였다. 그 중 두개 안을 선정하여 각각의 장점을 취하여 하나의 설계안으로 정리하였다. 지도교수와 함께 실시설계안을 작성하고 견적을 산출하고, 자재를 주문하였다.

2004년 5월6일 아침 8시에 자재를 반입하여 교수, 학생들이 함께 하루 종일 시공하여 5월7일 새벽 1시 30분에 완공하였다. 마침 학교에는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는 설계 응모에서부터 건물을 시공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축제(祝祭)라 부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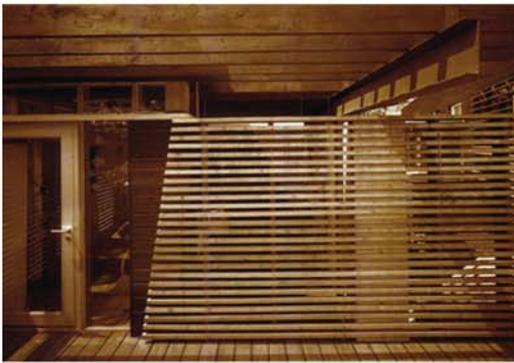




입 선

지은이네 집

건축사사무소 건축공방 무 이일우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 강북구 우이동
용도	단독주택 / 1종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40.10 m ²
건축면적	190.76 m ²
연면적	307.36 m ²
건폐율	56.10 %
용적율	90.40 %
구조	철근콘크리트 / 목구조 / 철골조
규모	지상2층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 서까래노출 / 천연페인트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 레드파인사이딩 / 적삼목루버
설계	건축사사무소 건축공방 무
시공	(주)대안건축 자연을 담은 집

예전 골목길로 나누어진 두 개의 필지가 합쳐 지면서, 대지는 양측 폭10M남짓의 새 날개 형상을 하게 되었다. 100평 남짓의 대지는 그로인해 더 협소해 보였으며, 마당의 입체적 위계가 필요했다.

자연히 남북의 좌우동과 그 사잇마당이 그려 졌으며, 동측의 도로변은 담장이 아닌 저층의 근생으로 하여 마을과의 소통을 열어주었고, 그 위에 옥상정원(공중마당)을 두어 북측 진입마당과 주거동을 통한 안마당, 그리고 도로측의 공중마당이 세 개의 동과 어울어지게 되었다. 안마당은 가볍게 띄워진 사랑채를 통해 저층에서 확장되고, 남측의 이웃과 경계를 허물어 소통하는 누하(樓下)의 공간을 얻을 수 있었으며, 비가 와도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주었다.

세 동으로 둘러싸인 안마당은 그들만의 세계를 담아내고 있으며, 공중마당에서 세상과 소통하게 된다. 사랑채와 주거동을 잇는 브릿지는 안마당세계의 구름다리 가 되어, 불쑥 들어와 있는 뒷집의 그 뾰족한 벽면도 이 세계와 하나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2004 한국목조건축대전

Korea
Wood Design
Awards 2004

조
경
부
문

출
품
작

갤러리안-신봉

제주도, 삼양동, 신사유적지, 유물전시관

이신혜어

등억리 P교수택

나눔펜션

이름드리디자인(주) 사무실

역광촌 펜션&카페

파리디이스

제주 비엔발

엘프 팰리스 펜션

푸르메 전원주택

정동진 하슬라아트월드 목외공간 설치공사

갤러리 安-신봉

(주)솔스티스종합건설 김대영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신봉리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675.00 m ²
건축면적	128.45 m ²
연면적	328.10 m ²
주구조	목구조
규모	지하1층 / 지상2층
설계/시공	(주)솔스티스종합건설



앞만 보면서 달려온 세대가 있었고, 그 당시 집이란 의미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좀 더 많은 여유로움을 가지게 된 우리에게 집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번 프로젝트-갤러리안<문드리안>의 시작 점은 이러한 고민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신도시 속에서 의도적으로 구획된 전원주택 그러나 최대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조망과 위치를 배려한 친환경적인 목조주택, 그 곳은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전시장(gallery)같은 편안(安)집이며 하나의 전시theme를 가지고 있고, 그 전시테마는 공간 공간마다 연속series로 실현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theme는 과거(classic)와 현재(modern)를 가장 잘 연결시켜 주는 화가이자 디자이너인 문드리안이다



문드리안의 이미지는 지하층-SPECIAL SPACE, 1층-MODERN SPACE, 2층-CLASSIC SPACE로 크게 3가지 분위기로 나누어지지만, 결국 하나의 만남의 이미지가 되어 FUSION SPACE로 실현된다. 지하층 주차공간의 진입부터 주차장 벽면의 수납함을 문드리안 작품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지하층 복도 공간의 장식장, 1층 복도 공간의 벽면, 거실에서 바라보는 2층 벽면, 2층 가족실의 선반 등 지하공간부터 1, 2층 공간까지 연속적인 문드리안 이미지를 실현하여 마치 문드리안의 전시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듯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고자 하였다.

제주도 삼양동 선사유적지 유물전시관

경민산업주식회사 배신식 (목구조시공)

대지위치 제주도 제주시 삼양동
 용도 전시시설
 대지면적 14,132.90 m²
 건축면적 560.81 m²
 연면적 613.71 m²
 주구조 철근 Con'C + 목구조
 규모 지하1층 / 지상1층
 설계 삼풍종합설계사무소
 목구조시공 경민산업주식회사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을 유적지인 제주 삼양동 선사유적을 훼손 없이 보존하고 선사시대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한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를 후대에 고스란히 재현시킴으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문화관광 자원이라는 점이 제주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지로서의 인프라와 잘 조화되어 문화적인 체험과 관광을 모두 충족시키는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이 가지는 문화적인 역사성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 라는 시간성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과 사각형 이라는 원초적인 형태의 매스(MASS)를 모티브로 출발하였다.

원과 사각형... 즉, 시간의 영속성을 뜻하는 하늘과 인류의 역사성을 가지는 땅의 만남이라는 지극히 이분법적인 은유의 대비가 아닌 그 옛날 최초의 인류로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공간(空間)에 대해 불변의 가치로 각인되어진 이러한 형태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임을 부정할 수 없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을 거란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

이신혜어

(주)스튜가 김갑봉

대지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용도 근린생활시설(미용실)
대지면적 114.80 m²
건축면적 77.54 m²
연면적 216.48 m²
주구조 경량목구조
규모 지하1층 / 지상2층
설계 미당건축사사무소
시공 (주)스튜가



등억리 P교수댁

도시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최대영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억리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495.00 m ²
건축면적	143.94 m ²
연면적	196.15 m ²
건폐율	29.08 %
용적률	40.03 %
주구조	철근콘크리트+ 경량목구조
외부마감	외벽 - 목재 사이딩, 스플릿블럭 / 지붕 - 아스팔트 싱글
설계	도시환경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킴스목조주택



나눔펜션

미담건축 이승재

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661.00 m ²
건축면적	115.50 m ²
연면적	197.20 m ²
건폐율	17.47 %
용적율	29.80 %
주구조	경량목구조
규모	지상2층
시공	미담건축



아름드리디자인(주) 사무실

구기건축사사무소 조정구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용도 사무실 및 주거
 대지면적 138.80 m²
 건축면적 69.42 m²
 연면적 69.42 m²
 주구조 한식 목구조
 규모 지하1층 / 지상1층
 설계/시공 구기건축사사무소



기능의 집적과 여유로운 공간

디스플레이 디자인을 하는 '아름드리'의 사무실 겸 주거이다. 강남의 보통 임대사무실에서 여유로운 북촌의 도시한옥으로 보금자리를 옮기었다. 24평의 한옥에 직원 11명의 근무공간과 3인 가족의 거주공간을 마련해야 했다. 그런 까닭에 기존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였는데, 지형의 차이가 있는 곳은 지하 서고를, 살림공간에는 다락을 두어 아이들의 침실로 계획하였다. 사무공간에서 보이는 인왕산과 주변 풍경을 보다 시원하고, 간결하게 보이게 하려고, 내부입면에 여러 궁리를 해보았다. 또 덧붙여 있는 자그마한 사랑방은 별도의 사랑마당을 두어 독립된 영역으로 자리하도록 했다. 설계와 시공을 겸하여, 원래 집의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많은 인원과 서로 다른 기능들이 적절히 배분되고 조화되도록 내외부공간으로 다루어 보았다.



역광촌 펜션&카페

한솔목조건축 김양수

대지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5리
용도 근린생활 및 펜션
건축면적 282.95 m²
연면적 393.28 m²
주구조 목구조
규모 카페동 2층, 객실동 1층, 단체동 2층
설계/시공 한솔목조건축



파라다이스

(주)팀버하우스 이기노

대지위치	충북 충주시 금릉동
용도	예식장
대지면적	3,833.00 m ²
건축면적	583.59 m ²
연면적	1,104.53 m ²
주구조	1층 철근콘크리트, 2층 중목구조
규모	지상2층
설계	정건축사사무소
시공	(주)팀버하우스



제주비엔빌

(주)좋은집 남영호



대지위치	제주도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용도	다세대 (펜션 2동 16세대)
대지면적	1,908.00 m ²
건축면적	510.48.00 m ²
연면적	766.08 m ²
주구조	경량목구조
규모	지상2층
설계	가이건축사사무소
시공	(주)좋은집

건축 Exterior Style은 네오프렌치 스타일로 유럽 전통의 이미지와 현대적 양식을 절충하여 도입하였고, 현관의 중후한 이미지와 지붕에 변화를 주어 상징적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외부 Deck는 유리와 Wood를 접목하여 Modern 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었고, 지붕의 평판 오지기와는 기존 지붕 자재를 탈피하여 기능성 및 내구성을 극대화하였다. 이는 더욱 목구조의 전통성을 살리는데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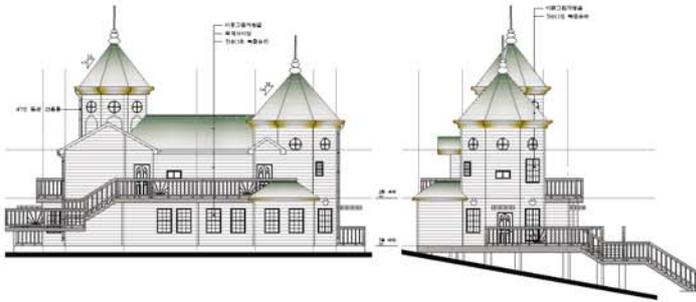
외부 공간과 하늘 그리고 땅, 내부공간이 어우러진 건축물이다.



엘프팰리스 펜션

(주)씨씨코리아건설 유태용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용도 숙박시설
 대지면적 8,446.00 m²
 건축면적 2,378.31 m²
 연면적 2,207.36 m²
 주구조 목구조, 철골
 규모 지상2층
 설계 (주)동회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 (주)씨씨코리아건설



푸르메 전원주택

티노우드디자인 황인철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평창리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567.00 m²
건축면적 111.81 m²
연면적 183.39 m²
주구조 일반목구조
규모 지상2층
설계/시공 티노우드디자인



정동진 하슬라 아트월드 옥외공간 설치공사

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 최성두

대지위치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용도 휴게데크, 이동통로, 공연장 등
주구조 목구조, 철골조
설계 건축사사무소 아키라인
시공 K-Frame
토목 다화엔지니어링

Design Concept

첫 번째는, 자연이 아름다운 공간이다.
동해안 비경의 해안선을 바라보며 소나무 숲 길따라 걷다보면 곳곳에 다소곳이 자리 메김한 조각품들을 감상할수 있다.

두 번째는, 자연에 순응하는 친환경적 공간이다.
건축물, 옥외 목조 데크공간, 목조계단, 통로 등등 모든 시설물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였고 필요에 따라 경사로, 계단을 설치하였다.

세 번째는, 고품격의 예술 휴식 공간이다.
국내,외 유명 조각가들의 작품을 전시하여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방문객으로 하여금 조각예술의 진수를 경험케 한다.

네 번째는, 자녀들의 교육 공간이다.
자연과 함께 나무, 풀이를 공부, 조각품 만들기, 그림 그리기등 각종 체험 학습 공간이다.



2004 한국목조건축대전

Korea Wood Design Awards 2004

계 획 부 류

계획작품 주제 설명

금 상 ECO-METASTASIS

은 상 EXTEND FRAME
(도시연계 URBAN CONNECTION)

서울숲 습지 생태원

동 상 FLOATING DECK

구조용 합판을 이용한 장SPAN 목조TRUSS
(한국형 초등학교 설계)

SUSPENDED STRUCTURE

출품작 조현리 생태주택

POST & BEAM (집성목구조)을 이용한
한국형 3층 근린생활시설 설계

ECO-DECK

休 (도심속 다기능 버스정류장)

목조건축의 텍토닉(tecton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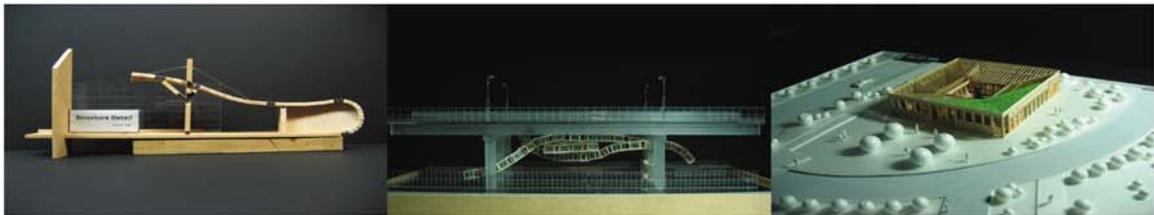
주제설명

이 시대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 과학기술에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발전의 한편에서는 환경파괴, 인간성의 상실과 같은 부작용도 간과하기 어렵다. 근원에는 근대적 상황 속에서 기술을 만드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을 구분되어 지나치게 같은 편에 서거나 반대편에 서있다. 오컨대 건축과 기술에 대한 근대 이후의 질문은 확실한 답이 내려지지 않은 채 기술을 건축의 중요한 메타포로 삼는 촉과 기술을 건축의 종속적인 것으로 삼는 촉의 대립만이 존재한다. 그리고 최근의 환경에 관한 논의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 대부분의 환경건축가들조차 이와 같은 현실을 기술적인 문제로 다루어진다.

여기서 목조건축은 특별한 건축 재료를 다루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목재의 보편성에 주목하는 일이다. 건축의 자율성으로서의 구축성과 기술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현대건축의 대안을 탐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목재(또는 목구조)의 보편성은

- 1) 역사 속에서 목수의 작업은 흔히 건축의 근원으로 인식 된다. 목구조의 구축성은 가장 건축적이다.
- 2) 철과 콘크리트의 경우 화석원료와 많은 에너지 사용 등, 환경문제를 전제할 때 그 보편성(정당성)을 잃어 가고 있다. 목재의 사용이 산림을 황폐화 시킨다면 통합된 관점에서 보편성을 가진 재료가 아니다. 방치된 정글보다는 숲의 적절한 사용은 나무를 잘 가꾸는데 도움이 된다. 잘 가꾸어 지는 산은 더 많은 탄소를 축적시키고 탄소의 집적체라고 할 수 있는 목재는 건축물 상태에서 오래 동안 보존된다.
- 3) 자연재로서의 목재는 과거에는 보편적인 재료였다. 오늘날의 집성목, 합판 같은 공학목재는 과학기술과 결합함으로써 현대적인 보편성을 획득한 재료이다. 공학목재는 결합 방법에 따라 다른 물성을 갖게 되고 철, 유리와 같은 현대의 재료들과 쉽게 결합할 수 있다.



설계내용

임의의 건축물 혹은 구축물을 설계하되 다음의 내용이 담길 것.

- 1) 목구조, 공학목재, 건설공법, 설계기법에 대한 한 가지 이상의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것.
- 2) 목조건축의 기술이 시설과 관계없이 형태적인 요소로만 쓰이거나, 건축에 종속적으로 사용 되는 경우를 피하고 건축적인 내용과 통합되도록 할 것.
- 3)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채용이 건축에서의 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상 시킬 수 있는지 표현할 것
- 4) 대지와와의 관계에서 장소성과 맥락성에 대한 고려를 표현하고, 대지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시설과 구법과의 관계를 드러낼 것.
- 5) 시대적 및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정기술에 대한 개념이 명확할 것.
- 6) 자연재로서의 목재보다는 공학목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용을 전제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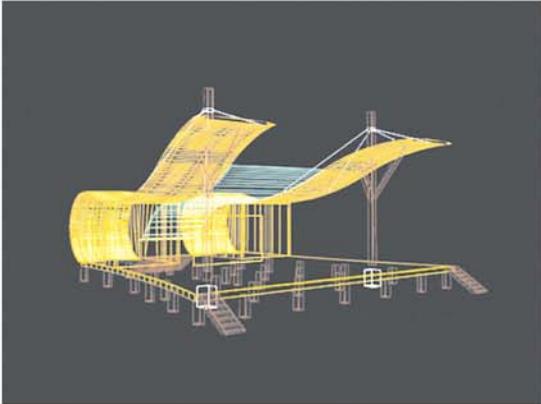
표현방법

가급적 평,입,단면도 및 투시도 등의 전통적인 표현방법을 지양하고, 3차원적 표현방식으로 공간, 구축방식, 건축적 및 기술적 효과를 표현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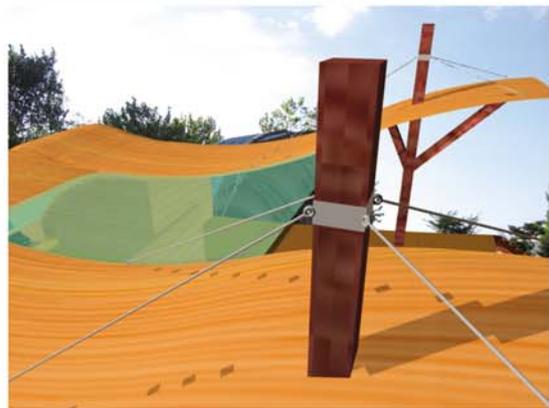


ECO-METASTASIS

조선대 건축공학과 2학년 송승진 / 박홍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닐 수 있는 스스로 그려해야만 하는 모습을 지닐 수 있다면 ... 모든 이념 사상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은 자연답게, 생물은 생물답게, 인간은 인간답게 그러한 서로 다른 존재들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하나의 세계 내에서 스스로 조직하여 공존할 수 있는 인간의 인위적이며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가 아닌 자연에 내재하는 질서의 법칙에 의해서 유지해가며 조직해가는 본성 ... 자연은 스스로 그려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해 가면서 병든 곳이 있으면 스스로 치유하고 유지해가면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으로 인해 만들어진 인공물들



흙길대신 다져져 있는 아스팔트, 돌담대신 서있는 콘크리트 벽들, 나무가 있던 자리에는 전신주들은 어떠한가? 그들이 만들어내는 풍경과 환경은 자기 스스로 치유하며 유지 하기는 커녕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여가고 있다. 물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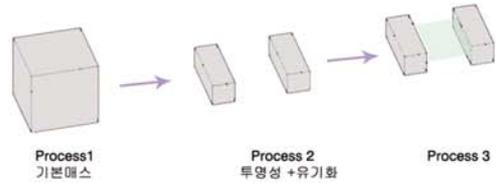
아스팔트위에 꽃은 피지 않는다. 콘크리트 벽의 독성은 주변에 식물이 존재하길 거부한다.

자동차의 매연은 도시에서 새 소리를 찾아 갔다. 우리를 존재케 하였던 자연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무책임한, 우리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자연을 파괴하며 우리 말고는 아무도 존재치 못하게 하고 있다. 아니 우리 자신마저도 언제 소멸할지 모를 지경이다.

이러한 개발과 경제논리로 우리 자신만의 이익 속에 자연의 파괴는 이미 위험의 수위에 이르렀고 우리는 이제 유연한 대처가 아닌 시급한 대처라는 표현이 적합한 시대에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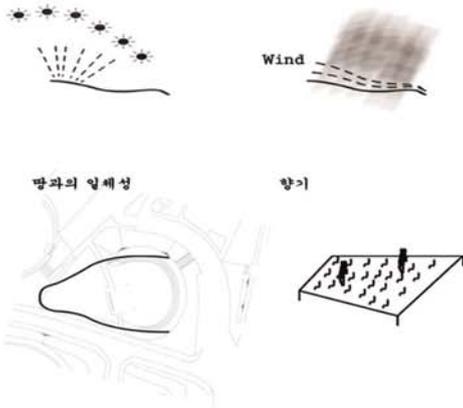
우리가 친환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주변에 대한 변화부터가 필요하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의 하나로써 친환경적인 재료를 통하여 이러한 재료가 내포하고 있는 자연적인 의미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신과 모든 생명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들로 지구를 덮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재는 그 재료 자체가 자연에서 거의 가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왔고 자연의 순환적인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 수명이 다할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자연 순응적인 산물이다. 또한 나무는 그 자체가 숨을 쉬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기와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일방적인 유해 물질만을 배출하는 인공물과는 구분을 달리한다.

재료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친환경적이라는 구호아래 “ 자연물을 그대로 이용 한다” 로 끝을 낼 수는 없다. 친환경적이라고 무조건 나무만 많이 심고 자연물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더욱 발전된 관계를 끌어내야 한다. 자연이라 함은 스스로 상호관계성을 맺어 나가야 한다. 즉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건축물이 자연물들과 관계를 맺음은 물론 우리와 자연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은 끊임없이 더 나은 생활과 정보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차 있다. 그로인한 파생물로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정보망이 생겨나 개인이 원하는 정보는 어디서든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족해진 반면 인간소의 및 자연환경 파괴 등 무시할 수 없는 역효과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목재는 그 재료 자체가 자연에서 거의 가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왔고 자연의 순환적인 연속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 수명이 다할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자연 순응적인 산물이다. 또한 나무는 그 자체가 숨을 쉬고 있다 다시 말해서 공기와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일방적인 유해 물질만을 배출하는 인공물과는 구분을 달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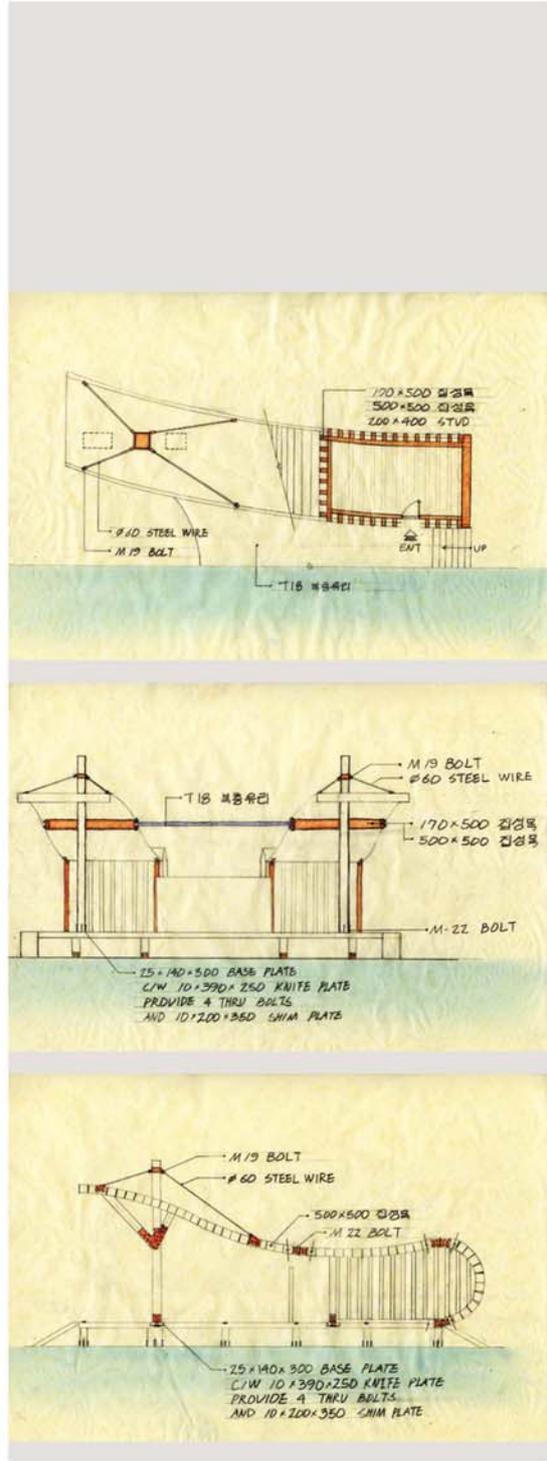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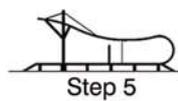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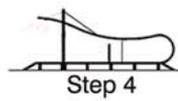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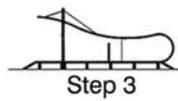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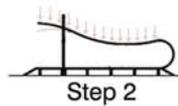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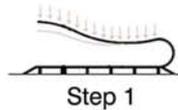


건축물을 구성하는 것이 재료뿐만이 아닌 자연이 만들어가고 자연에 반응해나가는 인공물에서 자연물로의 “전이” 적 건축을 제한한다.

조선대학교 후문 부근에 1.8급장 주변은 나무 몇 그루 빼고는 자연의 요소를 눈으로 찾아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편협한 시각적인 확인에 의한 것뿐이다. 눈을 감아 보면 우리는 자연 속에 우리가 있음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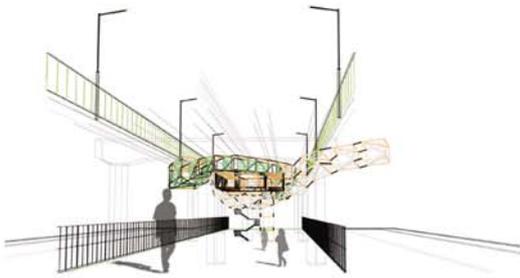
바람이 불어 우리의 뺨을 스치며 햇빛은 우리의 몸을 데워가고 향기로운 꽃 냄새는 우리의 마음을 스친다. 이러한 자연에 반응하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ECO-PLACE를 제안한다.

지붕의 곡선은 주변의 바람이 지나가는 방향과 일치하여 바람에 대한 일종의 메타포 역할을 해준다. 바람이 불 때마다 주변 나무와 결의 방향이 같아지면서 주변 자연과 동화되어 간다. 이때 구조를 담당하는 기둥은 이러한 동화를 더욱 심화 시켜나간다. 일조의 상황에 맞추어 만들어지는 경사로 인해 햇빛의 뜨거움이 아닌 따뜻함을 전달 받는다. 일체형 판에서는 자연의 성격중 하나인 경계 없음을 얻어 내어 자연과의 의미적 전이를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항목을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지만 마치 자연 속에 있는 것 같은 내음을 유발함으로 자연으로 인식된다.



EXTEND FRAME (도시연계 URBAN CONNECTION)

호서대 건축설계학과 4학년 박경구 / 양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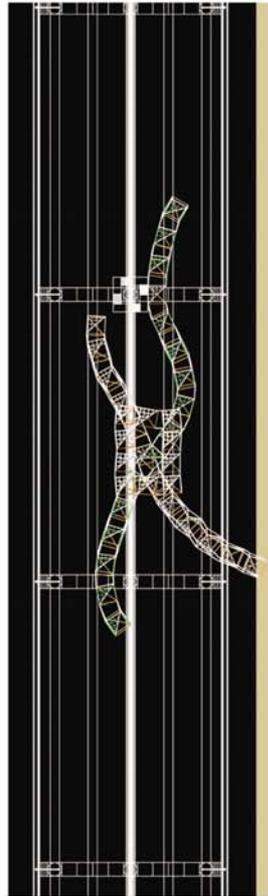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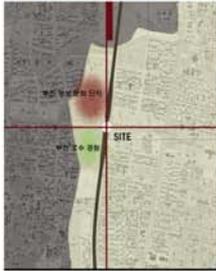
prologue

건축은 계속해서 발전한다. 인간은 인간계에서 이전보다 더욱 완전한 상태를 향하여 가치 있게 향상해 가려는 지속적인 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 발전 속에 속도에 너무 집착을 하면서 고가도로가 생겨나고, 속도로 인한 도시의 분절이 생겼다. 속도가 만들어낸 공간을 분해 하여 유익한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한다.

Concept Image

넝쿨은 작은 몸을 크고 딱딱한 벽에 의해 의존하면서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고 처음에 작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이 점점 확산되어 건물이나 벽 전체를 감싸는 특징이 있다. 거대하고 육중한 콘크리트 고가 도로에 넝쿨의 속성을 가진 공간을 부여하여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건축물을 설계 했다.





Site Analysis



기존의 대지에서 도시의 발달로 인해서 시와 군이 발생하고 시의 발생으로 인해 행정구역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경계가 생겨났다. 도시의 고속화 되어 감에 따라 고가도로의 형성으로 인한 강한 축이 발생하여 도시를 분단 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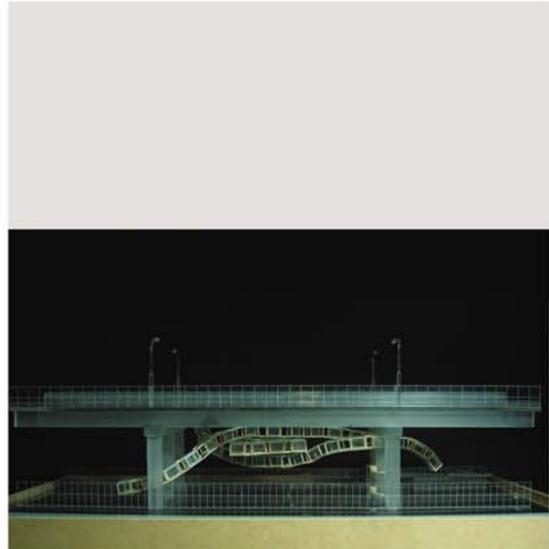
Site Analysis

SITE는 서울외곽 순환도로 고가도로 부지 아래 부분에 위치하였고 부천 지역의 끝부분을 단절 시켰다. 현재 인천시에서 인천시로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며서 부천시에서 근린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상 단지과 공원을 위치한 상태이다. 문화 공간이 있지만 고가도로와 큰 도로에 의해 동선 차단과 고가도로 부지의 황폐한 상황에 의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기존의 대지에서 도시의 발달로 인해서 시와 군이 발생하고 시의 발생으로 인해 행정구역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경계가 생겨났다. 도시의 고속화 되어 감에 따라 고가도로의 형성으로 인한 강한 축이 발생하여 도시를 분단 시켰다.

Space Unit

- Function 1. 공간을 지나가면서 간단한 전시회를 관람 할 수 있다.
 - Function 2. 가변성을 가진 공간으로서 사람들의 Community space로 사용 가능.
-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보는 즐거움과 공간을 느끼는 재미를 줄 수 있다.



Unit structure



Unit Structure

Unit간의 자유로운 형태의 조합을 이룰 수 있는 회전 힌지와 Unit을 조립 시에 조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임쇠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힌지 부분을 설계 하였고, 4개의 자유힌지로 인한 Unit을 고정하기 위해 힌지 모양이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Unit을 강하게 결부시킬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각 부재는 인장과 압축에 강하도록 기존의 나무에 철을 결합한 형태이다. 접합부분에 철을 사용하여 보다 강도 높은 구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Joint Detail



Joint Detail

부재는 기존의 목재의 비틀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얇은 목재를 여러 겹 붙여서 기존의 비틀림 현상을 막고 강도는 높였다. 그리고 결합 부위의 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철을 사용 결합부위의 강성을 극대화했다.

Character

고가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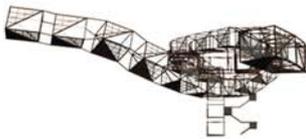
Material
Steel,
Concrete

Form
Straight

Power
Strong

Size
Large

전시실 (가변공간)



Material
Wood, Glass

Form
Cur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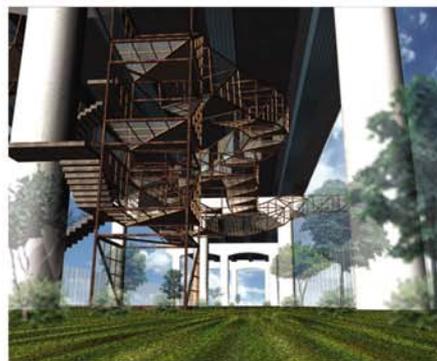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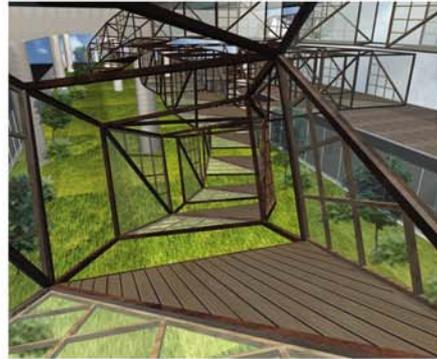
Power
Weak

Size
Small

Character

설계에 중점을 고가도로와 설계안을 어떻게 어울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였다. 우선 각자의 특성을 많이 생각하여 고가다리의 강하고 직선적인 형태에 작고 아주 유연한 가벼운 형태의 공간을 매달아 고가다리의 엄청난 힘을 이용하여 서로 공생하는 관계를 만들어 주었다. 공간도 매달면서 생기는 새로움과 고가다리 밑의 어두운 공간에 밝은 유리나 나무로 이루어진 공간을 위치시킴으로서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성향을 띄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도로안의 공원을 만들어주었다. 현재는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설계 개념의 녁품의 이미지처럼 계속해서 확장하는 지속적인 건축물을 계획하였다.

계속 같은 Unit을 연결하고 자유로운 형태로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공간이 확장되는 구조로써 나무가 자라듯이 공간이 자라는 구조이다. 점점 진보되는 공간으로 발전의 여운을 남겼다.



서울숲 습지 생태원

(주)에창건축사사무소 한경호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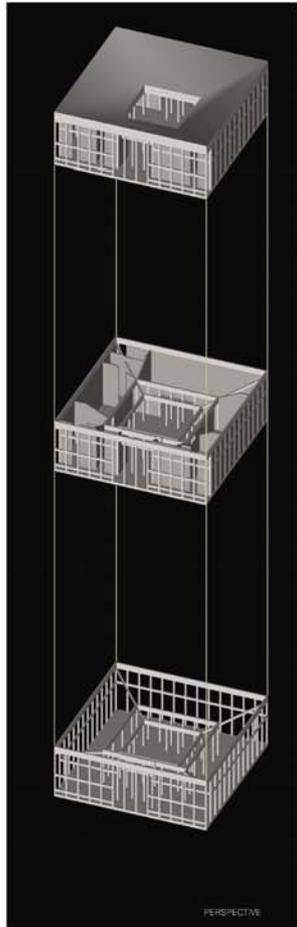
서울숲 조성공사 중 유수지의 지형을 이용한 습지의 다양한 경관 및 생태 이해를 목적으로 습지 생태원을 계획하였다. 생태 교육을 위한 세미나실 및 전시공간, 공공화장실을 포함하고 있다. 주변에는 어린이들의 환경교육을 위한 환경놀이터, 습지를 관찰하기 위한 관찰 데크, 인근 주민을 위한 녹지, 산책로, 조류관찰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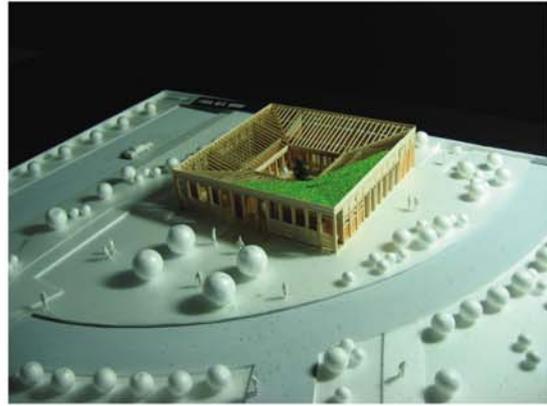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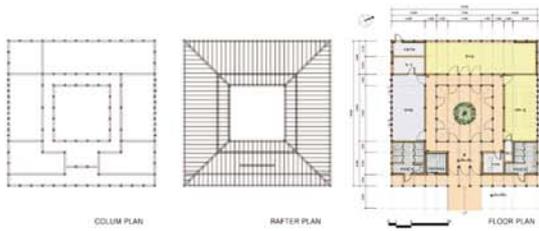
2. 디자인 개요

2-1. 디자인 개념

습지 생태원의 디자인 개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 1) 형태적으로 자연경관에 앞서지 않으며, 장소로서의 성격이 강한 공간의 계획.
- 2) 환경친화적인 건축재료의 사용과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생태건축의 실현.
- 3) 내부공간에서는 실별 기능의 최적화와 동시에 외부공간의 자연스러운 인지를 가능하도록 하여 경계의 의미보다는 영역의 의미를 갖는 공간 구성





3. 설계

3-1. 공간구성

네가티브한 공간구성을 통하여 오브제로서가 아닌 장소로서의 인식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공간의 시퀀스는 외부공간에서 진입공간(내 외부공간)인 데크로, 데크에서 다시 내 외부공간인 회랑으로, 다시 회랑에서 중정을 접한 다음 각기의 내부공간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정사각형 형태의 내부중정은 무 방향성의 균질적 공간으로서 동적공간인 회랑에서 또는 정적공간인 내부공간에서 외부공간너머로의 시각적 확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내부중정으로 쏟아지는 주변경관과 빛의 관념적인 수직축을 형성하여 강한 장소성을 갖도록 하였다.

3-2. 동선 및 배치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화장실을 전면에 데크와 병렬 배치하여 시설 이용의 편리와 더불어 이동 중에 기둥과 난간 루버로 형성된 시각의 시각들을 통하여 주변경관을 감상하는 휴게 및 관람의 공간이 되도록 하여 매개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이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시실을 가장 안쪽에 배치하여 중정으로 가두어진 하늘과 녹화지붕 그리고 내부공간이 시각적 연계성을 확실히 느끼게 하였고, 퇴장 시에 진입했던 진입구를 중정을 통해 되돌아보게 함으로서 낯설게 하기의 효과를 가지도록 하여 장소로서의 인지성과 시각적 감흥을 갖도록 하였다.



3-3. 형태구성

주변자연 경관을 압도하지 않는 스케일 구성 및 매스감이 없는 형태를 의도 하였다. 자연요소인 습지의 시작축인 수평성을 형태에 적용하여 주변경관과 융화되도록 하였다.

수직적인 목조기둥을 반복적으로 배열하여 수평성을 강조하였고, 선형의 목구조의 수평 수직의 결구를 통하여 매스감의 상쇄 및 인간적 스케일의 디테일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전면의 입면은 데크의 깊이감을 통하여 선형구조의 명확한 인식과 영역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3-4. 생태건축의 실행

재생이 가능하고 산업 폐기물이 생성되지 않으며 환경친화적인 목조기둥, 황토벽돌, 목조 플로어 데크를 사용하였으며, 깔도리와 서까래 고정틀 위에 서까래를 얹어 경사진 지붕을 구성하였고 중정부분에 회랑을 두어 내부에서 하늘과 녹화지붕 그리고 내부공간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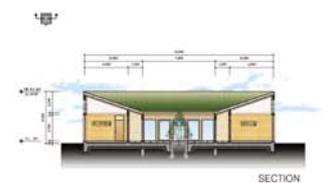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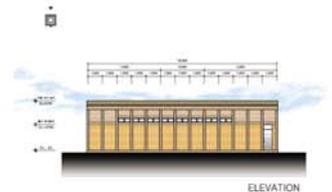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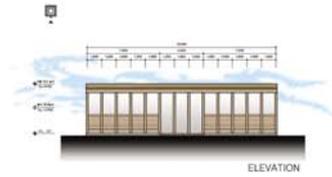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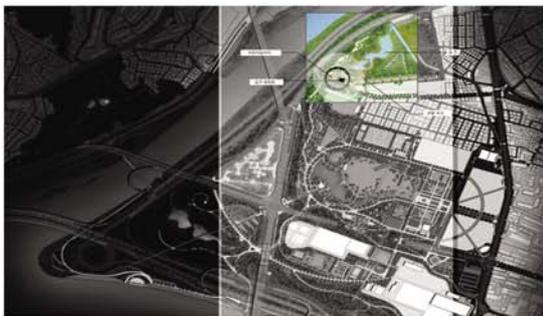
중정내부에 식재와 지붕녹화를 하여 지붕단열 및 생태적 환경을 구성하였다.

또한 황토벽돌과 단열재를 통한 벽면구성으로 단열기준 이상의 단열효과를 가지도록 하였으며, 지열시스템을 이용하였다. 또한 방위별로 입면구성에 있어 개구부의 크기를 조정하여 열손실이 적은 에너지절약 계획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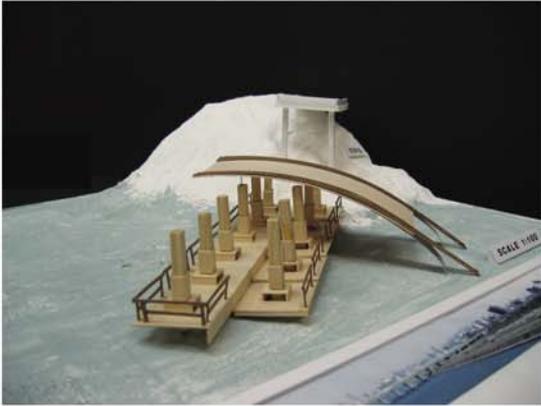
4. 서울숲 습지생태원에서의 목구조의 의미

습지생태원에서의 목구조의 도입은 앞서 살펴보았던 디자인 개념과 형태 및 공간구성의도에서 유도된 당연한 결과이다. 목구조는 생태건축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재료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가장 자연스럽고 주변과 친화력에서 우수한 재료이다. 이는 목구조가 인간적 스케일의 디테일을 통한 편안함과 목구조의 수평 수직적 결구의 단순성을 통한 외장미를 지녔으며, 구조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재료의 물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미니멀적 특성을 통해, 자연에서 그리고 전통적 수공예적 문화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감성을 자극한다는 데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습지생태원에서 공원 내의 시설로서 디자인 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재료로서 적절하였으며, 목구조의 활용을 통해 형태적 공간적 측면에서 의도한 바를 실현 시킬 수 있었다



FLOATING DECK

경기대 건축학과 4학년 유현정 / 이한림



개념

강 주변을 확장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휴식공간을 만든다. 그리고 수위 상승으로 기존의 휴식공간들이 물에 잠긴다(floating deck). 그래서 물에 잠기지 않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더욱 적극적인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개념이다.

프로그램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강 주변의 다양한 여가 활동 추구한다. 즉, 조깅 코스의 증진, 수변공간의 새로운 환경 조성(수변도로의 확장, 선착장, 테크, 야외공연장), 강 주변의 연결성 확보



텍토닉

1. 피스톤(steel rail) : 수변공간의 수위가 일정 기준면 상승하더라도 데크의 상하 움직임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2. 부력탱크(steel air tank) : 수위변화에 대응하면서 재료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부력탱크를 이용한다. 수변과 접촉시키지 않아 부식되지 않고 수변 상승에도 적극 대응한다.
3. wood deck : 목재의 텍토닉을 이용함과 동시에 선유도 공원과 비슷한 재료를 사용하는 메커니즘을 이용한다.

모듈의 사용

기본 유닛으로 확장의 가능성 부여하고 수면의 움직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수변 압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구조용 합판을 이용한 장SPAN 목조TRUSS (한국형 초등학교 설계)

한라대학교 건축과 3학년 강민경 / 신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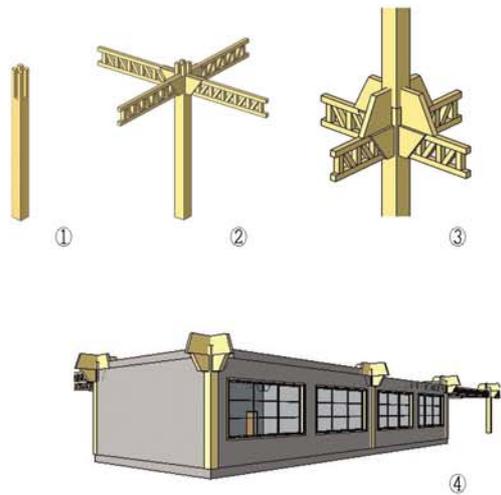
우리에게 옛 목조건축물에 사용되던 화통가지는 우리의 설계공법에 적합한 기법 이었고, 기둥에 가새와 구조용 합판의 조립을 통해 생성 되는 트러스가 전체적인 기둥트러스의 접합부 텍토닉을 구성하여 보다 강한 강도를 견뎌낼 수 있는 안전성을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 낼 수 있었다. 그렇기에 기둥과 기둥간의 간격을 넓혀 나가면서도 큰 강도를 이겨 낼 수 있어 처음 계획했던 장Span의 완벽한 공간을 소화 할 수 있었다. 장Span 목조 Truss에 의한 기둥의 부재는 더욱 안전하면서도 넓은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장스팬 구조물이 단층이 아닌 2,3층 이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상, 하층의 주요 구조부가 유기적으로 연결 접합 되는 것이 중요하다. 보와 슬래브는 층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기둥은 맨 하부층에서 상부층까지 하나의 구조물로 연속적인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이같은 기둥 슬라브 텍토닉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사용된 기법이 화통가지 이다.



[장스팬 구조물의 형성 과정]

- ① 기둥의 머리에 화통가지를 친다.
- ② 화통가지에 전통소로의 기능을 담당하는 가새를 X Y방향으로 접합 한뒤 현치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용 합판을 서로 겹쳐 제작 설치한다. 이때 합판은 기둥과의 접합성을 고려하여 역삼각형 모형으로 제작한다.
- ③ 기둥간격은 장변과 단변으로 구분하며 장Span Truss 사이에 단보를 설치함으로써 상층부 바닥 슬라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바닥 판 구조를 형성한다.
- ④ 화통가지를 이용한 초등학교 외관 및 투시도



SUSPENDED STRUCTURE

경기대 건축학과 4학년 이주한 / 인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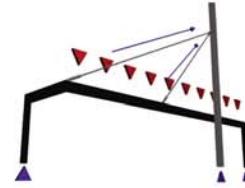


문제 해결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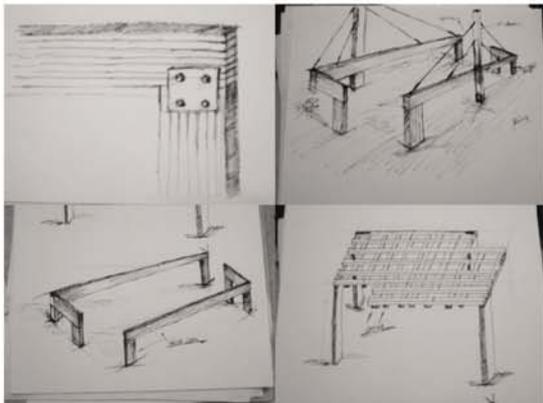
목재가 가지는 친환경성과 친근함을 이용하고, 쉽게 보이지 못했던 형태로 시민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이에 새로운 구조 형태와 재료의 사용에 대해 STUDY해 보았습니다.

문제도입

각 도시 하천의 수질 개선과 하천 주변 환경 개선 작업 등과 더불어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인식의 성장과 산책, 운동 등의 장소로서의 하천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민들의 접근을 유발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을 조성해 보고자 합니다. 부가적으로 그 구조물 자체가 친환경적이며, 거부감이 없고,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STUDY PROCESS



재료의 사용

데크를 지지할 수 있는 장스팬의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하여 글루램을 사용하였으며 기둥을 생략하면서 사장교와 같이 와이어로 보를 잡아 특이한 형태를 만들어 보았다.



SUSPENDED STRUCTURE



구조적으로 튼튼한 기능미와 다리만이 갖는 단조의 미를 강조
인간과 호흡하며, 주변 자연과 스스로의 조화를 갖는 도시공간 속 상징물이 되며, 딱딱
하고 거대한 구조물을 보다 강조적이고 친환경적인 목조구조물로써 제안해보고자 한다

STRUCTURE STUDY



J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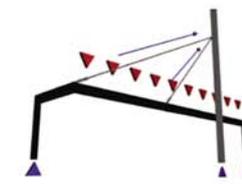
DRAWING



PLAN

ELEVATION

FORCE



CONNECT



조현리 생태주택

(주)에창건축사사무소 한경호



PERSP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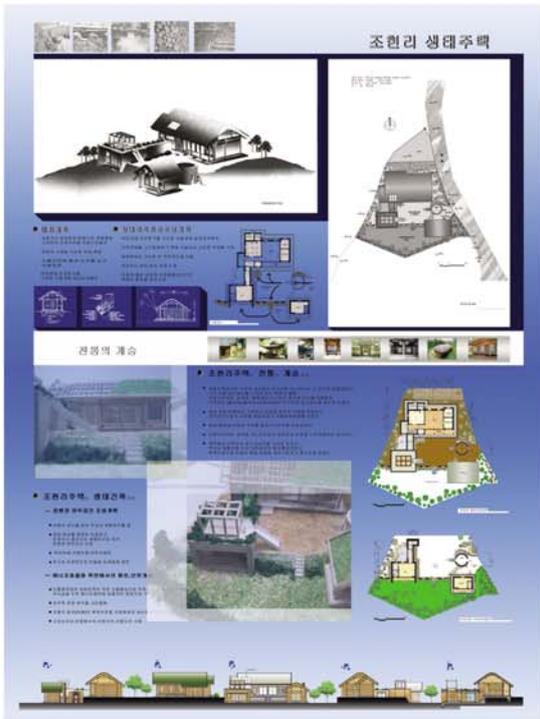
생태건축의 설계는 생태건축의 목적 즉, 에너지절약, 자원절약,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 연계, 그리고 인간의 건강 및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세부적 계획요소 및 기술, 기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UPPER LEVEL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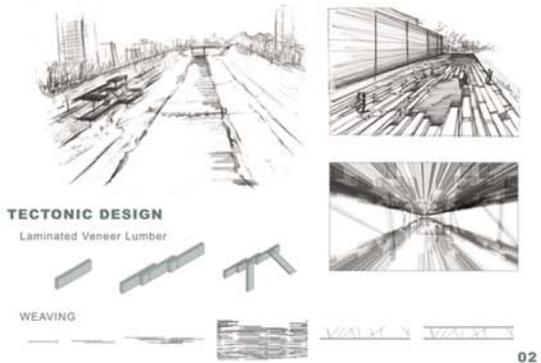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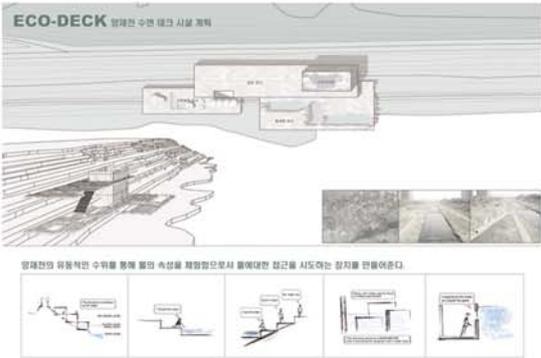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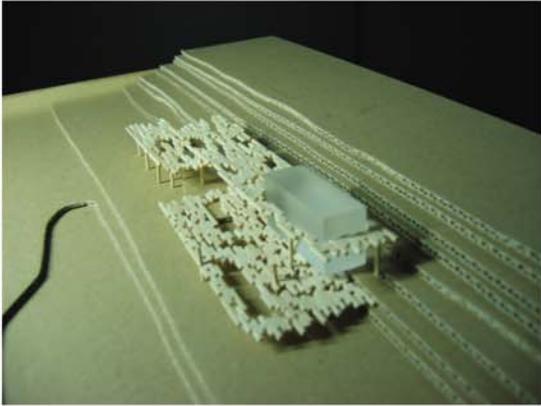


LOWER LEVEL PLAN



ECO-DECK

호서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김의섭 / 고석홍



프로그램

양재천의 유동적인 수위를 통해 물의 속성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물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장치를 만들어준다. 도심녹지공원 - 생태 체험장 - 수변 데크시설의 기능적인 연계를 통해 침체된 도시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도시민에게 사색의 장, 만남의 장, 교육의 장을 제공한 물에 의해 건물은 지속되어진다.

많은 비로 인하여 양재천이 범람하여 데크위로 물이 차오르기도 하고 유리밖으로 물속 단면을 관람자들이 체험한다.

- 양재천의 유동적인 수위를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 물을 만진다. 이용자들에게 데크 어디서나 차오르는 물을 만지고 느끼게 한다.
 - 물에 대해 각자 다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 지형에 순응하여 단계적인 매스형태를 띄고 자연에 감취지고 자연을 돋보이게 하는 형태를 시도하였다.
- 데크 자체가 양재천의 수위를 재는 **barometer**가 된다.
 - 유리밖으로 물을 경험한다. 양재천이 범람하여 건물밖으로 물이 차 있는 상황의 시나리오이다.

CONCE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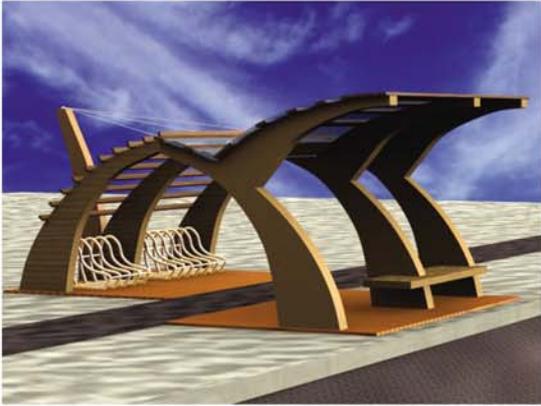
<역음>

기존의 L.V.L (Laminated Veneer Lumber) 를 볼트를 이용해 글루램들이 서로 엮고 엮히는 결합으로서 목재가 가지는 성질, 엮음을 통해 텍토닉을 드러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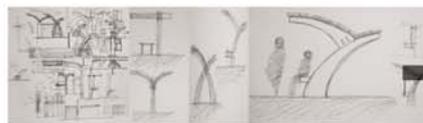
서로 다른 길이의 부재가 엮고 엮혀서 바닥을 만들고 기둥이 되고 천정이 된다.

休 (도심속 다기능 버스정류장)

한라대학교 건축과 3학년 김남규 / 추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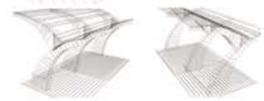


목재와 목재의 접합은 철물이 밖으로 들어나는 형태가 아닌 볼트를 이용한 접합 방법으로 외부의 마감을 단순화 시킨다. 집성목을 기둥으로 사용하고 그 기둥을 뒤쪽에서 다른 하나의 기둥을 통하여 앞의 세 기둥을 와이어로 잡아준다. 덮개 부분은 2*4를 이용하여 구조적으로 사용하여 덮개를 씌워준다. 2*6를 바닥에 사용해 구조적인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바닥에 패턴을 줌으로서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사용해 바닥 마감을 한다.



WAITING

현대도시의 버스정류장...
 차가운 철골구조에 강고한듯 기동치일하는
 변감지 않은 곳,
 비엔 도실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이
 지연속 느끼고 잠시나마 쉬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2004 한국목조건축대전

Korea
Wood Design
Awards 2004

2003 한국목조건축대전 수상작품소개

THE WOOD DESIGN AWARDS

기 고

복춘·한옥 / 송인호

대상 만리포 임해연수원

일건C&C건축사사무소 최관영/정동명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대지면적	1,553.00 m ²
건축면적	307.68 m ²
연면적	307.68 m ²
주구조	목구조 + 철골구조
규모	지상1층



본상 Lee's Book Cafe & Residence

L.A.R.S 박헬렌주현 / 김은미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용도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271.10 m ²
건축면적	85.68 m ²
연면적	169.66 m ²
주구조	목구조
규모	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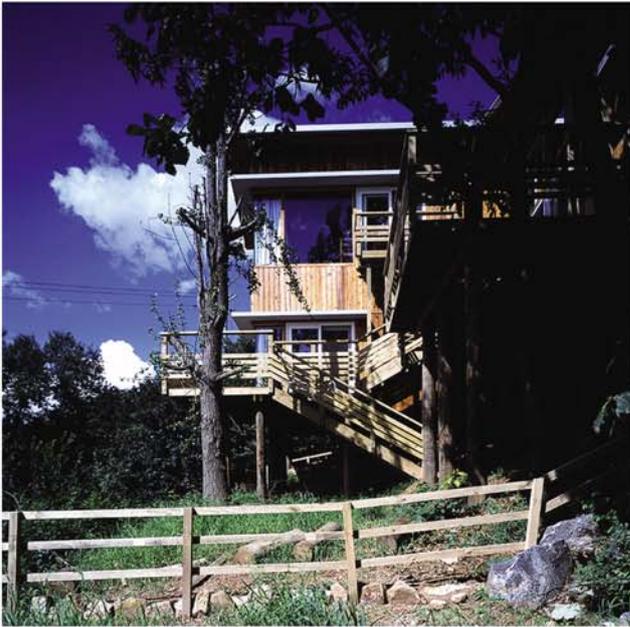


본상 **뚝뚝주택-민마루4**

가와건축사사무소 최삼영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용도	단독주택
대지면적	364.92 m ²
건축면적	120.24 m ²
연면적	169.02 m ²
주구조	경량목구조
규모	지상2층



본상 조태일 시문학 기념관

노뚝돌건축사사무소 이윤하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4,680.00 m ²
건축면적	419.49 m ²
연면적	558.83 m ²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목구조 및 일부 철골조
규모	지상2층



본상 해남 공룡 화석지 보호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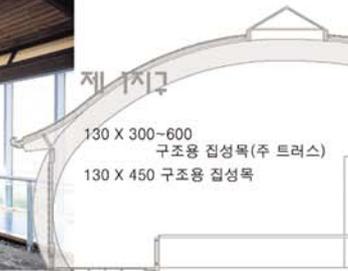
명지대학교 김흥식 +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김상식

건축개요

대지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일원
용도	문화재(화석)보호시설
건축면적	2,409.75 m ²
연면적	2,369.30 m ²
주구조	목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구조
규모	지상1층, 3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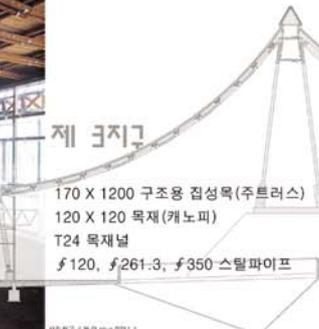
내부 구조



제 2지그



제 3지그



본상 난지천공원 Restroom

슬로건축 장재소 + 동심원 안계동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난지천공원 內
용도	화장실
규모	지상1층
외부마감	목재사이딩
내부마감	벽-목재루버워 오일스테인, 미송합판워 오일스테인 천정-목재루버워 오일스테인



THE WOOD DESIGN AWARDS

2001

미국과 캐나다에서 우수한 목조건축물로 수상된 작품.

www.WoodDesignAwards.com

www.WoodMags.com



Project

Muskoka Boathouse, Lake Muskoka, Ontario

Architect

Shim-Sutcliffe Architects, Inc., Toronto, ON



Project

Pilchuck Glass School Studio/Classroom Annex, Stanwood, Washington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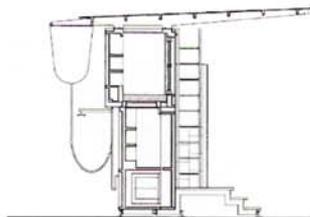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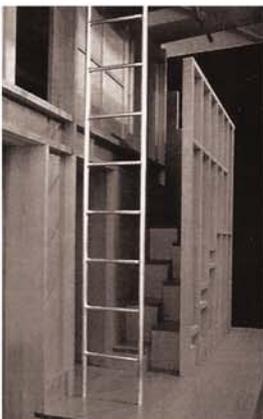
Weinstein Copeland Architects, Seattle, WA



Project
Caretaker's Complex, Lichfield County, Connecticut
Architect
Gray Organschi Architecture, New Haven, CT



Project
La Petite Maison de Weekend, Vancouver, British Columbia
Architect
Patkau Architects Inc.



THE WOOD DESIGN AWARDS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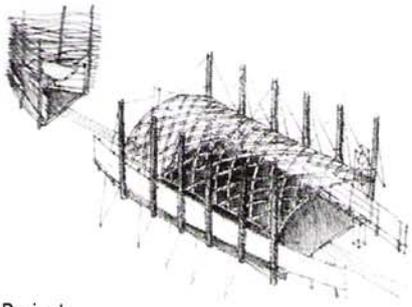


Project
Agosta House, San Juan Island, Washington
Architect
Patkau Architects, Inc.,
John Patkau, Patricia Patkau and David Shone Vancouver, 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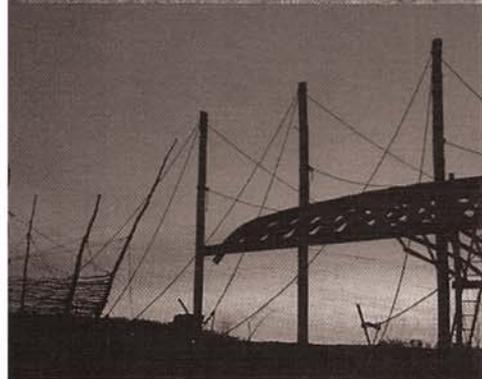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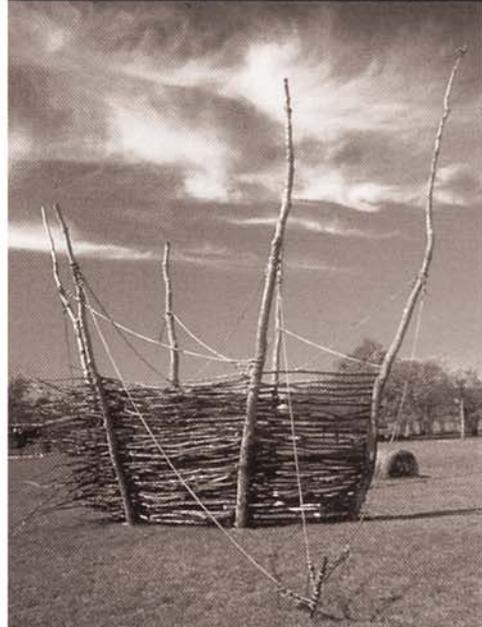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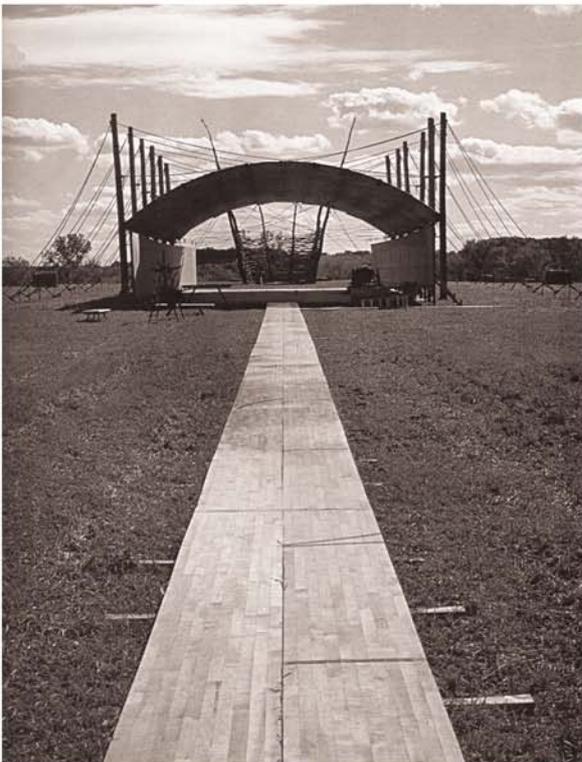


Project
River Tower and Studio, Granit, Colorado
Architect
Anderson, Mason, Dale Architects,
Ron Mason, FAIA; Kiel Moe, project architect Denver, CO





Project
Kansas Plains Wedding Chaple and Reception,
Rural Douglas County Kansas
Architect
Rockhill and Associates, Dan Rockhill and David Sain Lecompton, KS



THE WOOD DESIGN AWARDS

2003

Project

Emerson Sauna, Duluth, Minnesota

Architect

Salmela Architect, Duluth, MN



Proj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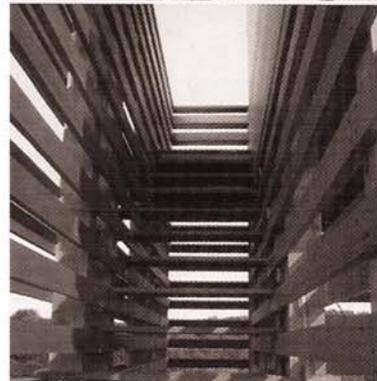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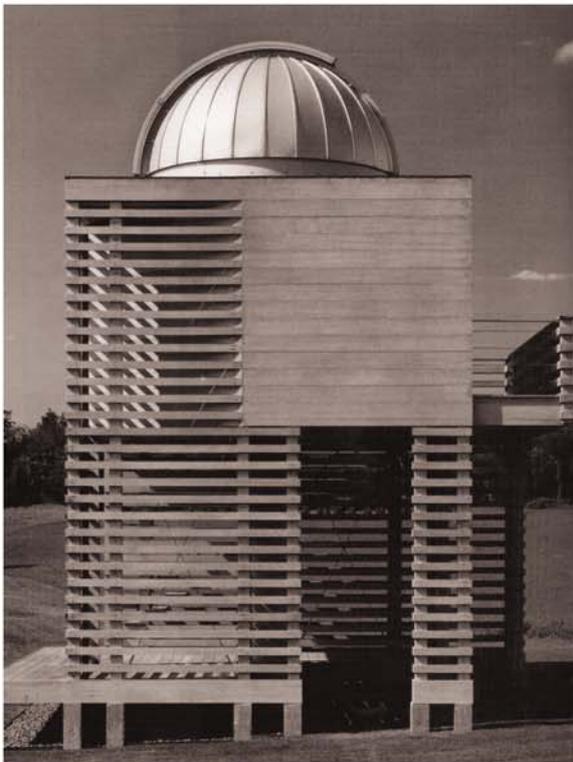
Outdoor Classroom, Staten Island and Southern Queens, New York

Architect

Marpillero Pollak Architects, New York, NY



Project
Home Observatory, Ghent, New York
Architect
Wendy Evans Joseph Architecture, New York, NY



북촌 한옥

송인호 /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1 / 한양의 옛지도를 보면 도성은 북악과 인왕과 목역과 낙타, 이렇게 네 산으로 둘러싸여있고, 산의 능선을 따라 성곽이 둘러쳐져 있다. 중심에서 약간 서쪽으로 치우쳐서 경복궁이 자리하고 있고, 그 동편에 창덕궁이 놓여있는데, **북촌**은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도성의 중심이다. 종각을 기준으로 북쪽을 북촌이라 부르고, 남쪽을 남촌이라 불렀다. 이십세기 들어서서 광화문과 돈화문을 잇는 길이 확장되고, 종로에 면한 청진동 인사동등의 지역이 도시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부터,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 지역만으로 한정하여 북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삼청동과 팔판동과 소격동과 사간동, 화동과 송현동과 인국동과 재동, 가회동과 계동과 원서동이 이에 해당된다.

북촌은 벌이 잘 들고, 물이 잘 빠지며, 남쪽으로 좋은 경관을 취할 수 있어서, 예로부터 한성부 도성내에서 가장 좋은 주택지로 일컬어져왔다. 더욱이 궁궐 가까이 입지하고 있어, 육조관아에 근무하던 관리들의 집들이 모여 있었고, 안쪽으로 권문세가들의 저택들이 자리잡고 있었다. “대갓집은 구름위로 우뚝 솟았고, 여염집은 땅에 가득 서로 닿아있네 (第宅凌雲屹立 閭閻擗地相連)” 라는 정도전의 시 ‘신도팔영(新都八景)’에서 한옥들로 가득했던 도성의 옛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

북촌은 북악과 응봉을 잇는 능선에서 남쪽으로 전개되는 구릉지에 몇 줄기 **물길**을 중심으로 동네가 좁고 길게 형성되어있다. 상대적으로 물길과 물길 사이는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능선들이 각각 삼청동과 가회동과 계동과 원서동의 경계이다. 1912년 지적원도를 보면 인국동 재동 화동 원서동 등 궁궐에 인접한 지역과 두 궁궐을 길 주변에는 작은 필지들이 밀집해 있다. 그리고 물길을 따라 오르면서 길 양편으로는 작은 필지들이, 길 안쪽 곧 지형이 높은 곳에 중대형 필지들이 놓여있다. 이처럼 필지의 형태는 일차적으로 도시적 위상과 관련 있으며, 그 위상은 지형과 무관하지 않다. 대부분의 필지는 미세하거나 뚜렷하거나 간에 고저차이를 가지며, 그 차이는 채의 구성에 예민하게 반영된다.

圖全善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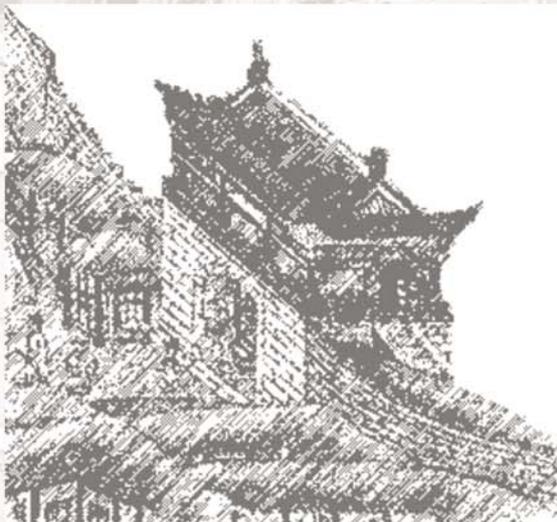
[그림1 : 김정호 / 수선전도]

2 / 우리나라 **한옥의 구성과 아름다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목구조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이다. 한옥은 나무를 다듬어서 기둥을 세우고 보를 깔고, 그 위에 소로와 첨차, 도리와 서까래를 짜 맞추어 세운 집이다. 각 나무부재들은 건축물을 지지하는 구조체이면서, 동시에 공간을 한정하는 요소이다. 유럽의 옛 건축문화가 조적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동아시아의 옛 건축문화는 목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조적조의 건축은 벽으로 에워싸인 공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조적조의 건축이 벽을 어떻게 열을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면서 공간의 성격을 결정해왔던 것에 반하여, 목구조의 건축은 벽을 어떻게 달을 것인가를 궁리하면서 공간을 한정해왔다. 목구조의 골격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식의 창호로 공간을 열고 닫음으로써, 변화에 대응하는 한옥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북촌 한옥

둘째는 온돌과 마루에 의한 공간구성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이다. 신을 벗고 올라가서 바닥에서 좌식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옥은 중국의 목조건축과 구별된다. 한편 마루와 온돌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목조건축과도 구별된다. 엄밀한 의미에서 한옥은 순수한 목조건축은 아니다. 흙은 지붕과 벽체, 그리고 바닥에 매우 큰 비중으로 사용되고 있다. 활달하지만 무겁고 두터운 느낌의 목조건축, 나무와 흙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얻어진 한옥의 조형이다.

세째는 집의 중심에 있는 마당에서 비롯된 아름다움이다. 마당을 예워 싸면서 채들이 배치되는데, 지역에 따라 달한 모자형 한옥, 툇모자형 한옥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그 구성의 요점은 집의 중심에 남겨진 마당이다. 그 안마당은 일견 닫혀있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모자형 한옥 너머의 외부공간과 소통하고 있다. 그 마당으로 인하여 내부공간은 외부공간(안마당)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구성된다. 내부와 외부공간의 역동적이고 풍부한 관계, 한옥 공간구성의 중요한 특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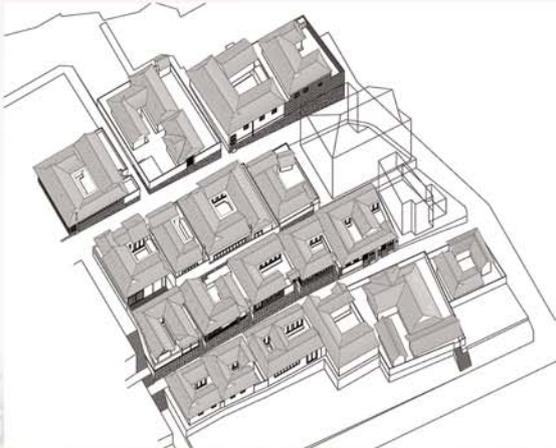
[그림2 : 경기김영도의 돈의문]

3/ 북촌은 1920년대까지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 1930년대에 서울의 행정경계가 확장되고, 도시구조도 근대적으로 변형되게 된다. 이 시기에 주택경영회사들은 북촌의 대형 필지와 임야를 매입하여, 그 자리에 중소규모의 한옥들을 집단적으로 건설하였다. 현재 한옥들이 밀집되어있는 가회동 11번지와 31,33번지, 삼청동35번, 계동135번지의 도시한옥주거지들은 모두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대청에 유리문을 달고, 처마에 잇대어 함석 채를 다는 등,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였기에 소위 '개량한옥' 이라고도 불려졌다. 또한 이 한옥들을 **도시한옥**이라 부르는데, 전통적인 한옥이 갖고 있는 유형적 성격을 잃지 않으면서, 근대적인 도시조직에 적응하여 새로운 도시주택유형으로 진화했다는 점을 주목하여 붙인 이름이다.



[그림3-1 : 가회동11번지 도시한옥주거지-1962년 항공사진 / 배치도]

이 한옥들 하나 하나는 문화재급 한옥에 비하여 그 격이 떨어지지만, 이 십세기 초반 서울의 도시주거형태와 문화를 잘 간직하고 있다. 근대적인 주거지구조와 전통적인 주거유형이 하나의 유기적인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잘 보존된 다른 전통마을에 못지않은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다른 문화재도 그렇지만 북촌의 도시한옥주거지는 주거유형과 주거지가 함께 보존될 때, 그 가치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 한옥 자체 뿐 아니라 한옥과 한옥이 이루고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 비슷한 형태의 한옥지붕들이 놓여지는 필지의 조건에 따라 조금씩 모양과 방향을 달리하면서, 집합되어 이루고 있는 경관이 아름답고 독특하다.



[그림3-2 : 가회동11번지 도시한옥주거지-엑소노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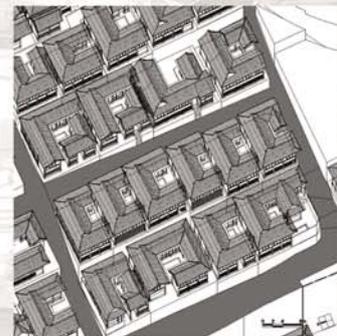
4/ 현재 북촌에 약 구백여 호의 한옥이 남아있다. 전체 필지 수가 약 이천 오백개 정도인데, 천구백구십년 한옥보존지구가 해제된 후 약 육백여 채의 한옥이 다세대주택으로 바뀌고, 이제 삼분지 일이 조금 넘는 정도가 남겨진 셈이다. 그 중에서 **가회31, 33 도시한옥주거지**는 한옥들이 모여서 전통적인 도시경관을 이루고 있으면서, 그런 대로 골목길의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거의 비슷한 크기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한옥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정형의 필지위에 ㄷ자형 또는 ㄴ자형한옥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가회31 33도시한옥주거지는 1930년대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개발되었다. 가회동33번지가 1933년에서 1934년의 시기에 당시 당시 대표적인 건설업체였던 건양사에 의하여 먼저 개발되었다. 그리고 가회동31번지가 이보다 조금 늦게 1936년에서 1939년에 걸쳐 역시 건양사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건양사를 경영하던 정세권은 청부업자와 달리 직접 자기 자본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집을 짓고, 와서 사기도록 했던', 근대적인 분양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했었다.

그 당시 북촌의 상황과 주택건설방식은 정세권이 1935년 11월 [삼천리] 라는 잡지에 기고한 "꼭등하는 토지, 건물시세, 천재일우인 전쟁호경기 래! 어떻게 하면 이판에 돈 버을까" 라는 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당시 '경성부가 호경기를 맞이하여 1933년과 1934년 사이에 육칠천 호의 주택이 신축되었으며, 특히 1935년 봄 이래로 서울의 북촌산 일대는 어느 한곳 빈틈이라고는 없이 한옥이 지어지고 있다' 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진 덕분에 '한번에 여하히 많이 지어 놓으래도, 채 전부 완성되기 전에 「예약제(豫約濟)」로 반분(半分)이상이 결정되고, 전부 완성되면 곳 자리가 드러내는 형편' 이었다고 한다. 물론 1920년대 후반에 이미 '방매가(放賣家)' 라는 제목으로 주택매매광고가 나오지만, 천구백삼십년대의 급속한 도시화과정과 함께 이른바 '건설과 분양방식' 은 새로운 주택공급방식이 자리 잡게 된다. 가회동31번지와 33번지는 이러한 방식으로 건설되고 분양된 전형적인 천구백삼십년대의 도시한옥주거지이다. 지금은 한 동네처럼 보이는 가회31번지와 가회33번지이지만, 개발시차 때문에 둘 사이에는 뚜렷하게 경계선이 남아있으며, 두개의 도시조각으로 구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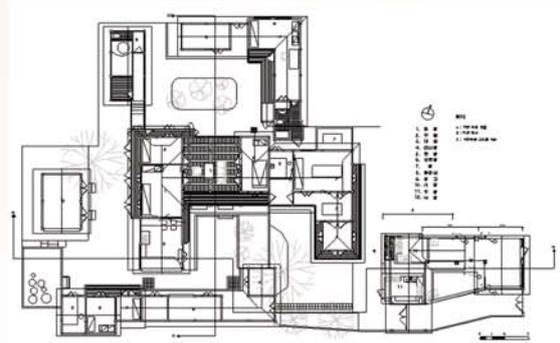
[그림4-1 : 삼청동35번지 도시한옥주거지-항공사진 / 필지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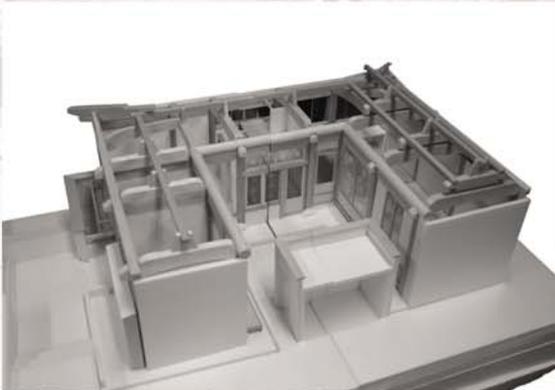
[그림4-2 : 삼청동35번지 도시한옥주거지-엑소노메트릭]

북촌 한옥

5/ 북촌의 도시한옥은 대부분 **ㄷ자형 한옥**이다. 이러한 ㄷ자형 평면유형은 주거지구구조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가회31도시한옥 주거지의 가로체계는 정자형(丁字形)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있다. 먼저 전체 필지의 형태와 지형을 고려하면서 남북방향의 골목길을 계획하고, 이를 중심으로 필지를 분할한 것이다. 분할된 필지는 그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지만, 대체로 가로(동서)향이 긴 편이다. 한옥들도 대체로 '남쪽으로 열린 ㄷ자형'이지만 각 날개의 비례가 다르다. 한편 가회33번지는 남북방향으로 긴 '루프형'이다. 원래 필지의 형태 안에서 분할되는 필지수를 최대로 하면서 길의 형태가 결정되었다. 가회31와 가회33은 그 개발단위와 시차가 다르지만, '남북방향의 뚫린 골목과 남쪽으로 열린 ㄷ자형 한옥'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도시조직은 흡사하다. 그것은 길에 대해서는 달혀있지만, 햇볕을 향해서는 열려있는 안마당을 가질 수 있는 도시한옥의 유형학적 질서이다.



[그림6 : 계동 105번지 한옥 (현재 북촌문화센터)]



[그림5 : ㄷ자형 도시한옥 모형]

"모양을 시방 비원의 그 한국집 모양으로 지은거 있잖아. 고걸 견본으로, 도본 그려 달라구 그려서서 그 모양으로 지으셨어. 당신이 여기서 메느리 을구, 손자 낳구 그려한다구, 손자가 여럿 나면 방이 커야 한다구 안방을 육간을 맨들으셨어. 육간씩 해서 가운데 장지를 들이셨대요. 미루는 삼간이구. 대궐 목수가 짓는데,팔월 추석(1921) 때 거기 들어가 추석을 지내셨대요. 얼마나 속성으로 재축을 허셨이든, 싹 새로 지은 집이야. <이 '계동마님' 이 먹은 여든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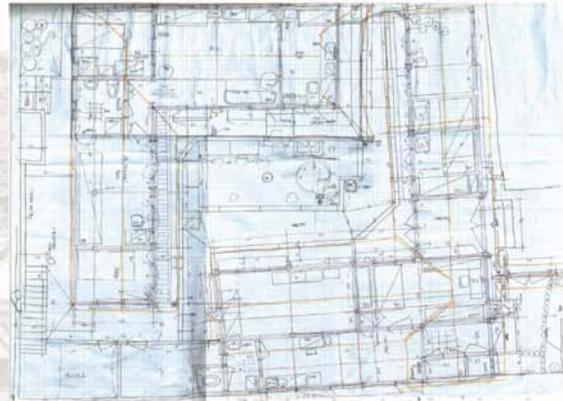
6/ 한편 비교적 큰 필지에 놓인 한옥들도 남아있다. 계동105번지의 한옥은 부정형한 필지경계선을 따라 바깥채와 안행랑채, 뒤행랑채가 배치되어있다. 이렇게 도시에 대하여 폐쇄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한정하고, 그 안에 ㄱ자형 안채와 ㄱ자형 사랑채놓이는데, 둘이 연결되어 ㄷ자형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고 있다. 안채 서쪽에 사당채가 있다. 뒤쪽으로 짧은 골목이 연결되어, 뒤행랑채에 또 하나의 문간이 있다. 이 집이 지어진 배경이 「이 '계동마님' 이 먹은 여든살」이라는 책에 다음과 같이 잘 묘사되어있다.

7 / 북촌 **튼ㄷ자형 한옥**의 구성과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촌의 **튼ㄷ자형 한옥**'은 '경기형 **튼ㄷ자형 한옥**'이 도시필지에 놓이면서 변형된 한옥유형이다. ㄱ자형 안채는 큰 변화가 없으나, 길에 바로 면하게 되는 ㄴ자형 바깥채의 한 날개(문간이 구성되는 반화방장(半火坊牆)등 두터운 면으로 구성된다. 그럼으로써 밖으로는 이웃 한옥과 골목길의 표층을 만들고, 안으로는 안채와 더불어 안마당을 구성한다.

둘째, **튼ㄷ자형 한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필지가 적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필지의 비례이다. 남북방향이 동서방향보다 약간 긴 필지가 **튼ㄷ자형 한옥**을 구성하기에 유리하다. 바깥채의 남쪽으로 좁지만 분화된 바깥마당을 갖기 위한 것이다.

셋째, 북촌 **튼ㄷ자형 한옥**의 바깥마당은 안마당과 공간적으로 분화되어 있으나, 안채와 바깥채 영역은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두 영역은 사랑방과 사랑대청을 통해 시각적으로 연속된다. 도시의 작은 필지에 놓이면서 밖으로는 닫혀있으나, 안으로는 열려있는 공간구성을 갖는다.

ㄷ자형 도시한옥은 ㄱ자형 안채와 일자형 문간채가 일체화된 ㄷ자형으로 진화되면서 완성된 것이다. 그것은 서울 도성안과 도성주변부에 근대 주거지가 형성되는 1930년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적인 도시주택유형이다. 한편 북촌의 **튼ㄷ자형 한옥**은 근대 이전부터 북촌에 있어왔던 주거유형이다. 그것은 경기지역의 **튼ㄷ자형 한옥**이 도시조직위에 놓이면서 부분적으로 구성과 성격이 변이(mutation)된, 또 하나의 전통적인 도시주택유형이다.



[그림7-1 : **튼ㄷ자형 한옥**의 실측도면]



[그림7-2 : **튼ㄷ자형 한옥**의 지붕구성]

북촌 한옥

8) 북촌가꾸기사업은 '주민의 마음과 의지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는 마을만들기'라는 점에서, 그리고 개발일변도로 치달던 서울이 '역사 도시의 보전과 재생을 위하여 공공자금을 투입한 모델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립하고, 서울시 주택국 도시환경정비반 한옥보전팀에서 추진하고있는,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의 기본목표는 북촌의 역사경관과 **한옥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양면적인 작업이다. 한편으로 북촌의 역사도시경관을 회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주민의 마음을 움직여서 한옥을 지니고 살고 싶도록 만드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도시한옥주거지의 길과 마당의 윤곽을 회복하는 일이고, 동시에 현대에도 잘 적용할 수 주거로서의 가치와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를 위하여 '한옥등록제'와 '한옥수선지원제도'라는 제도가 실행중이다.

1) 韓屋登錄制 '한옥등록제'는 '한옥에서 살고싶다'라는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옥으로 등록하게 하는 제도로, 등록한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원과 혜택을 주고,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 이



[그림8-2 : 궁중음식연구원-새 한옥 계획안]



[그림8-1 : 궁중음식연구원-옛 한옥 전경]

전의 하향식 의사결정과 구별되는 큰 전환이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과 같이 보존 대상이 주민들의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북촌 역사경관의 보존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제안된 것이다. 북촌가꾸기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년 가까이 된 2004년 2월 현재, 북촌에 남아있는 한옥 900여채 중 약 289채의 한옥이 등록하였다. 주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북촌가꾸기사업'의 희망이다.

2) 修繕工事費 支援와 融資 '한옥 수선공사비 지원'은 한옥은 잘 쓰여질 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한옥을 부수고 양육 짓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비로소 역사경관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제안된 것이다. 한옥지붕과 안마당, 길에 면한 한옥 외관을 공적인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를 수선하는 비용은 서울시에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삼분지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무상 보조한다. 시민들이 북촌의 역사경관을 향유하는 대가를 세금으로 치르는 셈이다. 한편 내부공사는 '한옥의 구성과 아름다움에 기대에, 현대생활에 맞게 고칠 수 있도록 한다. 이 공사비의 일부를 용자하는 것 역시 한옥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지키기 위해서이다. 한옥 내부가 편리하고 지혜롭게 이용될 때, 한옥의 외관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4 한국목조건축대전

Korea
Wood Design
Awards 2004

단 제 소 개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목재문화포럼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Furniture Ind. Cooperatives



본회는 우리나라 가구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회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1962년 12월 12일에 설립되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의 가구생산 전문단체로서 유일하게 전국적인 가구산업 분야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본회 산하회원으로서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11개 지방조합이 있고 지방조합은 각 시·도를 행정무구역으로 관장하여 2002년 6월말 현재 1,351개의 가구 제조회사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본회는 가구산업 전반에 관한 정부의 시책을 각 조합에 통지하고 가구산업체 운영에 관한 조합원들의 고충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국가적 가구산업에 관한 정책 등 대정부 정책건의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보호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우리나라 가구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매년 「서울국제가구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374-2 가구회관 2층

tel. 02-2215-8838 fax. 02-2215-9729

www.kffic.or.kr

조경시설물설치공사협회

Korea Specialty Construction Association

Committee of Landscape Plants & Facilities Constructors



조경시설물설치공사협회 설립목적

조경전문건설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고, 조경관련 법령의 개선과 조경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경전문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이룩하고자 1985. 7. 20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혁

1985. 07. 05.	조경시설물설치공사협회 사무실 개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14-21]	
1985. 07. 20.	창립총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협회 제1대 위원장	주필수취임
1988. 11.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협회 제2대 위원장	주필수취임
1990. 03.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협회 제2대 위원장(보선)	조남천취임
1991. 11.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협회 제3대 위원장	조남천취임
1994. 11.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협회 제4대 위원장	지경호취임
1997. 11.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협회 제5대 회장	지경호취임
1998. 03.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협회 제5대 회장(보선)	정경훈취임
2000. 10.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협회 제6대 회장	홍태식취임
2003. 10.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협회 제7대 회장	명인중취임

협회의 사업

- 조경건설업 관련 법령의 합리적 개선
- 조경건설업 관련제도 개선방안 연구.
- 조경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와 조사 연구.
- 품셈, 시방서, 설계단가 및 노임의 합리적인 개선.
- 고유업역확대 및 회원사의 권익보호.
- 전문기능인력 육성 및 교육.
- 전문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발간 및 지원사업.
- 회원 봉사업무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자문에 응함.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395-70. (전문건설회관 8층)

tel. 02-3284-1126-8 fax. 02-3284-1129

www.landscape.or.kr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Korea Lumber Industrial Cooperative

우리조합은 목재공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여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정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 있습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기타 서비스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과 관리 운영
2. 조합원간의 사업조성에 관한 기획 및 조성과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당해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장관에 대한 조정신청
3.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기업체와 조합원인 수급기업체간의 계열화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화와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부(어음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 기술 및 품질관리의 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
9.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조합원에 대한 복리후생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 판매장의 설치 및 관리
12. 기타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전각호의 부대사업과 목재회관의 일부임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44-35 제일빌딩 812호

tel. 02-783-0657/9 fax. 02-782-5738

www.lumber.or.kr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Korea Wood Building Design Association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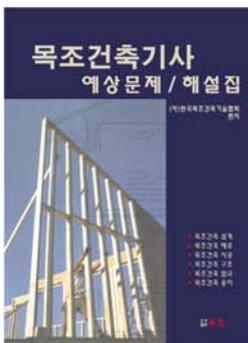
한국목조건축 전문가들의 기술향상과 상호협력의 강화로 권익을 증진하고 목조건축에 관한 기술연구, 자료보급 및 회원들의 기술 활동에 관한 지원과 후원을 통하여 한국목조건축의 국제적 지위와 목조건축 전문가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이룩하여 건축기술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건교부 산하에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역

- ① 한국전통목조건축과 현대목조건축의 접목을 위한 외장 및 기술적 연구
- ② 한국목조건축 기술의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와 지도
- ③ 한국목조건축의 발전과 전문기술개발을 위한 자료발간 및 지원
- ④ 목조건축 기술 보급과 정보를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증진
- ⑤ 회지 및 정기, 비정기 간행물 발간
- ⑥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활동

- 목조건축기술 세미나 Wood Building Design Seminar and Forum
- 목조건축기술 전시회 Wood Building Design Exhibition
- 목조건축 단체 현장견학 Visit and Observation of Wood Building Site
- 협회 소식지 발간 (1호~32호) News Letter (No.1 to No.32)
- 목조건축기사시험 실시 Wood Technical Design License 제1차 : 2005년 1월 16일
- 한국목조건축대전 심사 및 후원 2003 & 2004 Korea Wood Design Award
- 회원 수상활동 지원 Support for Member's Activities
- 목조건축 전문 교육사업 및 국제정보 제공 Education Activities
- 한국-캐나다 주택협의회 한국대표단 Member of Korea-Canada Housing Committee
- 건강주택연구소 운영 Healthy Home Center
- 목조건축자격증 및 인증제도 추진 Wood Design Certificate and License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8-2 시화빌딩 5층
tel. 02-553-2001 fax. 02-553-2031
www.wooda.org

한국목조건축협회

Korea Wood Construction Association



- 설립연월일 : 1997년 4월 26일
- 설립목적 : 우리 나라의 목조건축을 활성화시키고 올바른 목조문화의 보급을 위한 목조건축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정보와 자료 교환을 통한 업계의 발전과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회장 및 사무국이사(상임이사 또는 전무)

- 회원수 : 104명(정회원 : 35개 회원사 , 준회원 : 69명)

- 협회소개 : 우리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목조건축 관련 비영리법인으로 목조건축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를 천직으로 여기며 자재,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을 통하여 목조건축이 우리나라에 널리 전파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한국목조건축협회는 목조건축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축업자의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되어 목조건축산업에 관련된 자료수집,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조사연구 및 개선으로 목조건축기술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협회의 회원인 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여 국내 목조건축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을 다루는 시공업체와 목조건축과 관련된 자재업체, 설계업체, 개발업체 그리고 언론 및 미디어는 우리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7 율암빌딩 706호

tel. 02-518-6013 fax. 02-518-6014

www.kwca.co.kr

설립목적

(사)한국합판보드협회는 우리나라의 합판, 목질판재(PB, MDF), 해외조림 등 목재공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 복리증진을 기하여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3년 9월 19일 농림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동년 9월 21일 창립총회를 갖고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협회는 회원사의 발전을 위하여

- ①원료수급안선 및 해외조림 확대.
- ②제품조사 및 제조기술의 지도와 연구.
- ③합판과 목질판재(PB, MDF) 및 목재가공품 수출의 진흥 증대를 위한 제반시책 연구.
- ④제품의 수출안선 및 외국관련 상사와의 유대 강화.
- ⑤정부의 목재공업 및 해외조림 시책에 대한 건의 또는 자문.
- ⑥제반 자료의 수집 및 연구 분석.
- ⑦정부에서 지시하는 사업.
- ⑧제품 보급, 선전, 회원의 친목 및 전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감사 등의 임원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매년 아시아태평양목재기구(APTO) 및 한국·일본·대만 3국 합판업자 간담회 등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세계 목재산업의 동향 및 국내목재관련 자료 등을 신속히 파악·수집하여 각종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판·보드류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 및 신제품을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목질패널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0 원정빌딩 901
tel. 02-780-3631 fax. 02-780-3634
www.kwpa.or.kr

목재문화포럼

Wood Culture Forum



집행위원회

홍보출판위원회

연구분야

가구예술위원회

건축문화보존위원회

건축설계위원회

공예문화재위원회

목재공학위원회

목질환경위원회

유치원교육위원회

조형예술위원회

학교교육위원회

산업분야

국산재산업위원회

목재가구위원회

목재보존위원회

목재유통위원회

목조건축위원회

목질재료위원회

조경시설재위원회

합판보드위원회

우리는 대대로 「목재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목재로 만든 집에서 목재가구와 목재 생활도구를 사용하였고 이의 영향으로 여유 있고 타인을 중시하는 민족성을 형성하며 동방예의지국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황폐화된 산림에서 목재생산이 줄어들고 도시화 산업화로 자연소재인 목재사용은 줄어들고 다른 인공소재로 대체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의 생활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 “빨리빨리” 라는 단어가 지리 잡았습니다. 딱딱하고 경직된 분위기가 확산되고, 늘어나는 학교폭력의 파괴성과 참을성 없이 성급하고 나약하게 변해가는 후대들의 심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의 주거 생활문화를 목재중심의 「목재문화」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재문화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 성장보다는 사회복지와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 있어 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뿌리박힌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 생활 교육 전반을 「목재문화」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목재문화운동」은 딱딱한 생활에서 부드러운 생활로, 회색공간에서 녹색공간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조급성에서 여유성으로, 차가운 거리감에서 따스한 친근감으로, 나약한 청소년에서 자신 있는 청소년으로, 파괴적 정서에서 창조적 정서로 전환하자는 운동입니다.

『목재문화포럼』은 이와 같은 「목재문화운동」을 통하여 시민정서를 순화하고, 여유 있는 삶을 창출하며,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교육 분위기를 창의적으로 쇄신해 나가는 등 우리 가정 마을 사회 교육환경을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8-2 시화빌딩

tel. 02-508-5106 fax. 02-2006-6214

www.woodforum.or.kr



오늘은 푸른꿈, 내일은 푸른숲



꿈으로 사고 자연으로 바꾸는 **녹색복권** -

당신의 미래를 연주해 드립니다.



녹색복권의 수익금은 푸른 숲,
맑은 물 등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에
쓰여집니다.

인터넷 녹색복권 판매
www.luckiss.com
www.mylotto.co.kr

 **산림조합**

청소년에게는 복권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복권기금 (녹색자금) 지원사업